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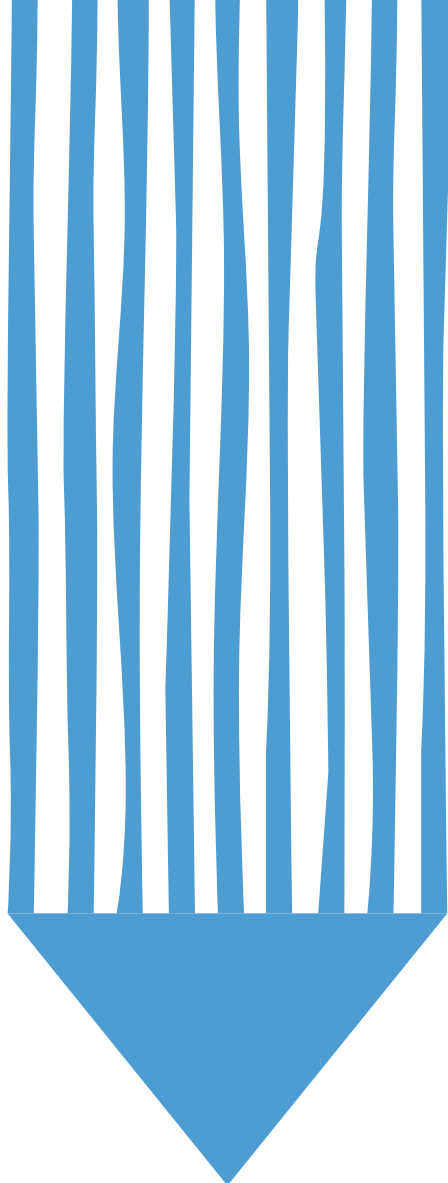


에듀원 콘텐츠 저작권 안내

(주)에듀원에서 제공하는 보충자료입니다. 아래의 콘텐츠 저작권 고지를 반드시 인지하시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실린 모든 편집 구성 및 형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주)에듀원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전송,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웹하드, P2P 등 (주)에듀원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온·오프라인에서의 공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1:1문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
이병민

정답 및 해설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영어

C

05 Beg to Differ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08

- 01 ⑤
 02 (1) apathy (2) ignorance (3) concentration (4) ingredient
 (5) applause
 03 ④ 04 ⑤

- 01 ⑥는 '모욕적인 : 칭찬하는'이라는 뜻의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응시 ② 비어있는 ③ 무례한 ④ 놀라운
- 02 (1) 무관심: 흥미, 열정 또는 관심의 부족함
 (2) 무지: 무언가에 대한 지식, 이해 또는 정보의 부족함
 (3) 집중: 다른 것 말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주의 깊게 생각하는 능력
 (4) 재료: 특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조합된 어떤 음식이나 물질
 (5) 박수: 즐거움이나 무언가에 대한 동의를 보여 주기 위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박수를 치는 소리
- 03 more often than not: 자주, 대개 (= often, frequently)
 other than: ~ 이외에
 • 나는 대개 학교에 가기 전에 우유를 마신다.
 • 그녀는 그녀의 자동차 이외에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 04 <보기>와 ⑤의 embrace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간의 차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① 그녀는 그녀의 꿈 인형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줬다.
 ② 그는 승강장에서 그들이 포옹하는 것을 봤다.
 ③ Jessica는 그를 포옹하기 위해 팔을 활짝 벌렸다.
 ④ 나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를 포옹했다.
 ⑤ 그들은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항상 열망한다.

C 교과서 핵심 대화 p.009~010

- 01 Have you ever tried 02 ⑤

- 01 여자의 질문에 남자가 '아니, 나는 시도해 보고 싶어!'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현재완료를 이용한 질문인 '시도해 본 적이 있니?'라는 뜻의 Have you ever tried가 적절하다.
- 02 멕시코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멕시코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충고해 주고 있다.

C 교과서 기타 대화 p.011

- 01 T 02 F 03 F

- 01 소년은 롤라춤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다.
 02 소녀는 전에 이집트에 가 본 적이 있다. (→ 대화상으로는 이집트 방문 여부가 언급되지 않아 알 수 없음.)
 03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오직 화장실에서만 화장지를 사용해서 충격을 받았다. (→ 미국에서는 오직 화장실에서만 화장지를 쓰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냅킨 대용으로도 사용하는 것에 충격 받았음.)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12

- 01 ⑤ 02 ① 03 ①

- 01 빈칸 뒤에서 베트남 국수인 Pho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⑤ 'Pho를 먹어 본 적이 있나요?'가 적절하다.
 여: 안녕, 여러분. 내 이름은 Bian이야. 나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혹시 포를 먹어 본 적이 있나요? 그건 베트남의 국수예요. 그 국수는 쌀로 만들어졌어요. 포는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① 요리하는 것을 즐기나요?
 ②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③ 나는 서울에 가 본 적이 없어요.
 ④ 베트남에 가 본 적이 있나요?
- 02 빈칸 뒤에 인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도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아니?'이다.
 A: 나의 인도 여행을 위해 조언 좀 해 줄래?
 B: 물론이지! 인도에서는 왼손으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
 A: 그래? 왜?
 B: 그건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
 ②③ 나의 인도 여행을 위해 조언 좀 해 줄 수 있니?
 ④ 인도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니?
 ⑤ 인도에서 내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니?
- 03 ① '마르티시가 인형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라는 질문에 '물론이지, 그게 무엇이니?'라는 대답은 자연스럽지 않다.
 ② A: 페루의 마추픽추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
 B: 아니, 그것에 대해 말해 줄래?
 ③ A: 미얀마의 사원에서는 반바지를 입으면 안 돼.
 B: 꼭 기억할게.
 ④ A: 필리핀에서는 식사 중에 코를 풀면 안 돼.
 B: 그래? 왜?
 ⑤ A: 이집트 여행을 위해 조언 좀 해 줄 수 있니?
 B: 물론이지. 이집트에서는 연장자 앞에서 다리를 꼬면 안 돼.

G 교과서 핵심 문법 p.013-014

- 01 whose brother 02 one of the most difficult cities

- 01 그 소년(the boy)의 형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와 brother(형, 형제)를 쓴다.
 02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을 이용한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1 p.015

- 01 (1) whose (2) whose (3) which[that] 또는 생략
 02 ⑤ 03 ③
 04 (1) who (2) whose (3) which

- 01 (1) '식물의 줄기'가 수분을 저장하는 것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선인장은 줄기에 수분을 저장하는 식물이다. (cactus: 선인장 / stem: 줄기)
 (2) '새로운 양말의' 재질이 부드러운 것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Eliot은 재질이 부드러운 새로운 양말을 샀다. (material: ④ 재질, 재료 ⑤ 물질의)
 (3) 선행사 the recipe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that]가 적절하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도 가능하다.
 나의 친구는 그의 여동생이 그에게 준 요리법으로 쿠키를 만들었다.
- 02 ⑤ '그 남자의 어머니'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고쳐 써야 한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가 유명한 의사인 남자와 데이트하려 갔다.

- ① what은 의문대명사로 동사 understand의 목적어로 적절하게 쓰였다.
그녀가 말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니?
- ② 선행사가 동물(a white dog)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옳으며, 뒤에 오는 동사는 선행사(3인칭 단수)에 일치시키므로 is가 적절하게 쓰였다.
나는 두 달 된 하얀 강아지를 키운다.
- ③ 동사 loved의 목적어이며, 선행사가 사람(a lovely girl)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적절하게 쓰였다.
그는 그가 첫눈에 반한 사랑스러운 소녀를 만났다. (at first sight: 첫눈에)
- ④ 선행사가 사물(The bicycle)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옳으며, 뒤에 오는 동사는 선행사(3인칭 단수)에 일치시키므로 has가 적절하게 쓰였다.
네 개의 바퀴를 갖고 있는 자전거는 초보자를 위한 것이다.
- 03 ③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 whose를 of which로 바꾸고 명사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 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합리적인 옷을 좋아한다.
- 04 (1) 선행사가 friend이며 뒤에 주어라 없는 것으로 보아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적절하다.
Philip은 나와 자주 영화를 보러 가는 친구이다.
- (2) 'Dylan의 아내'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아내가 영어 선생님이 Dylan은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할 것이다.
- (3) 선행사가 farm이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지난 주말에 그녀는 내가 말했던 나의 수박 농장에 왔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2** p.016

- 01 (1)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s rising unemployment
(2) One of the greatest discoveries in Korean history is to make
(3) one of the best musicians that Austria has ever produced
(4) One of the best methods is developing[to develop]
- 02 (1) reacts (2) orbit (3) were (4) do
- 03 (1) is → are (2) place → places (3) bedroom → bedrooms

- 01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을 이용하고, 이 구문이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하여 단수 동사가 온다.
- 02 「each of the + 복수 명사」 구문이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하고, 「부분 표현 + of + 명사」 구문이 주어로 쓰이면 동사는 of 뒤의 명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1) 각각의 아이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반응한다.
(2)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돈다.
(3) 반 학생들의 대부분이 여자였다.
(4) 이 아이들의 3분의 2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 03 「부분 표현 + of + 명사」 구문이 주어로 쓰이면 동사는 of 뒤의 명사의 수에 일치시키고,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each of the + 복수 명사」 구문이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한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다.
(2) 내가 한국의 가장 유명한 장소들 중 한 곳을 소개할게.
(3) 네 개의 침실 각각은 외부로 이어지는 테라스를 갖고 있다.

R 교과서 기타 **지문** p.021

01 F 02 F

- 01 사람들은 헬러윈 날에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특별한 의상을 입는다. (→ 나쁜 영혼들이 그들에게 장난치지 못하도록 특별한 의상을 입음.)
- 02 사람들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친구들의 볼에 입맞춤을 한다. (→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절(Bowing)이며, 볼에 입맞춤(Cheek Kissing)은 친밀함을 나타내며, 축하를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행동임.)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지기** p.022-023

- | | | | |
|-------------------|--------------------|------------------------|-------------------|
| 01 followed | 02 where | 03 Perm | 04 students |
| 05 feel[to feel] | 06 a few | 07 anything | 08 to be bothered |
| 09 준호는 지호를 노려보았다. | 10 had been | 11 have drawn | |
| 12 다문화적인 | 13 were | 14 whose | 15 where Perm was |
| 16 is | 17 그 자체로 | 18 more often than not | |
| 19 편견 | 20 ~가 넘쳐나다 | 21 집중력이 거의 없었다 | |
| 22 coming | 23 simultaneously | 24 뛰쳐나오다 | |
| 25 was | 26 줄을 서다 | 27 was | 28 puzzled |
| 29 that | 30 one another | 31 to create | 32 has |
| 33 which | 34 hadn't thought | 35 mentioned | |
| 36 to hide | 37 나의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 38 mix it up | |
| 39 교대로 ~하다 | 40 eating | | |

T 내신 1등급 대비 **1회** p.024-035

- | | | | |
|---|------|-------------------------------------|--------------------------|
| 01 ③ | 02 ① | 03 ⑤ | 04 ③ |
| 05 (1) uncover (2) bother (3) embrace (4) puzzle | | | |
| 06 (m)ulticultural | 07 ③ | 08 in | 09 ③ |
| 10 ①, ⑤ | 11 ⑤ | 12 ⑤ | 13 ② |
| 14 you should not[shouldn't] put your hands in your pockets | 15 ② | | |
| 16 ⑤ | 17 ④ | 18 ① | 19 ④ |
| 20 which → of which | 21 ① | 22 whose | |
| 23 This was one of the most powerful earthquakes in world history. | | | |
| 24 ③ | 25 ⑤ | 26 takes → take | 27 ④ 28 ② |
| 29 ③ | | | |
| 30 had been the first foreign student at this school, he might have drawn | | | |
| 31 ③ | 32 ③ | 33 ⑤ | |
| 34 Being indifferent is not a bad act in itself. | | | |
| 35 ③ | 36 ④ | 37 one of the most common greetings | |
| 38 ② | 39 ⑤ | 40 ⑤ | 41 ④ 42 ③ 43 ② |
| 44 (A) → all the ingredients (B) → students | 45 ② | | |

- 01 ③은 '정직하지 못한 : 정직한'이라는 뜻으로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응원[격려]하다 ② 귀찮게 하다 ④ 어리둥절해하는 ⑤ 열정적인
- 02 ① foreign(외국의)은 '어떤 장소나 국가 안에 위치한'이 아니라 'located outside a particular place or country and especially outside your own country(특정 장소 또는 국가, 특히 자기 나라 밖에 위치한)'으로 풀이 될 수 있다.
② 무관심: 누군가나 무언가에 대한 관심의 부족
③ 응시: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나 누군가를 오래도록 바라 봄
④ 총합: 둘 또는 그 이상의 수나 양이 더해질 때 전체의 수 또는 양
⑤ 편견: 특히 충분한 생각이나 지식 없이 형성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견이 나 느낌
- 03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라는 뜻으로 ⑤ simultaneously 또는 at once로 바꿔 쓸 수 있다.
나는 양치와 머리 감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① 끊임없이 ② 일시적으로 ③ 계속해서 ④ 영구적으로
- 04 ③ take turns + -ing: 교대로 ~하다
① 뛰쳐나오다 ② 줄을 서다 ④ ~으로 넘쳐나다 ⑤ ~에 흥미를 갖다
- 05 (1) uncover(뚜껑을 열다): 무언가를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다
(2) bother(귀찮게 하다): 짜증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있어 문제를 일으키다
(3) embrace(반아들이다): 믿음, 이론 또는 변화를 기꺼이 그리고 열렬히 받아 들이다

- (4) puzzle(당황하게 하다): 그들이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약간 걱정하게 야기하다
- 06 '많은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거나 관련된'에 해당하는 단어는 multicultural(다문화의)이다.
- 07 ③ '~으로 넘쳐나다'라는 뜻의 표현은 be flooded with이다.
 ① 소녀들이 뒷좌석에서 뛰쳐나왔다. (leap out: 뛰쳐나오다)
 ② 팀들은 이것을 교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take turns: 교대로 ~하다)
 ③ 시장은 실용적인 제품들로 넘쳐난다.
 ④ 나는 항상 한국사에 관심을 가졌었다.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⑤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포스터를 만든다. (draw attention: 관심을 끌다)
- 08 get in line: 줄을 서다
 in a circle: 원형을 이뤄
 • 다른 사람들처럼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세요.
 • 의자가 로비에 원형으로 배열되었다.
- 09 빈칸 뒤에서 '응, 들어봤어. 그것에 대해 말해 줄래?'라고 대답했으므로 빈칸에는 ③ '플라멩코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가 적절하다.
 B: 응, 들어봤어. 그것에 대해 말해 줄래?
 A: 그것은 전통적인 스페인 춤이야. 매우 빠르고 격렬해.
 B: 흥미로운 걸. 내게 플라멩코 추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니?
 ① 플라멩코에 대해 어떻게 알았니?
 ② 플라멩코에 관심이 있니?
 ④ 나에게 플라멩코에 대해 설명해 줄래?
 ⑤ 플라멩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
- 10 No sweat.는 '별 거 아냐.'라는 뜻으로 No trouble., No problem. 등과 바꿔 쓸 수 있다.
 ② 그럴 리 없어.
 ③ 놀랄 것이 없어.
 ④ 다른 방법이 없어.
- 11 Jane은 Jake에게 원한다면 마트료시카 인형을 나중에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⑤가 대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 마트료시카 인형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② → 마트료시카 인형은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다.
 ③ → Jake는 Jane에게 마트료시카 인형의 특별한 점에 대해 묻고 있다.
 ④ →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 12 주어진 문장은 '너는 이번 주 목요일에 인도에 가는구나.'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응. 나의 인도 여행을 위해 조언 좀 해 줄래? - ㉠ 물론이지! 인도에서는 왼손으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 - ㉡ 그래? 왜? - ㉢ 그건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3 영국에서 V 표시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② '문화적인'이 적절하다.
 ① 도덕적인 ③ 불공평한 ④ 자연의 ⑤ 열대의
- 14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shouldn't이다.
- 15 만약 멕시코에 가게 되면 더욱 조심할 것이라는 소녀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② '아마도.'는 적절하지 않고, ①③④⑤는 '물론이지.'라는 뜻으로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적절하다.
- 16 ⑤ 첫 번째 문장은 '그 남자의 딸', 두 번째 문장은 '영어 선생님의 집'이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 딸이 경기에서 이긴 그 남자는 테니스 코치이다.
 • Tom은 집이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영어 선생님이다.
- 17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과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해 영작하면 The reporter who wears a nice suit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journalists.이므로 열두 번째로 오는 단어는 ④ most이다.
- 18 ① 선행사가 동물인 '친구의 고양이'이므로 선행사가 사람인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고쳐 써야 한다.
 나는 성가신 친구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annoying: 짜증스러운, 성가신, 귀찮은)

- ② 선행사가 사람(the driver)이므로 관계대명사 who[that]가 옳게 쓰였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운전자는 부주의 했다.
- ③ 선행사가 전치사의 목적격이 사물(the book)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옳게 쓰였다.
 이것이 모두가 이야기하는 책이다.
- ④ 선행사가 사물(tree)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옳게 쓰였다.
 그 사원에 130년 된 유명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
- ⑤ 선행사가 사물(the book)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that]이 옳게 쓰였다.
 현재 절판된 그 책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 19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핵심이 one이므로 단수 취급)과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car와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 3인칭 단수 uses의 수 일치)를 바르게 이용한 ④가 적절하다.
- 20 '그 우산의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므로 which를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손잡이가 부러진 그 우산은 바로 지난주에 구입했다.
- 21 ①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가 주어일 경우 단수 취급하여 단수 동사가 와야 하므로 are를 is로 고쳐 써야 한다.
 ② 나는 어제 그가 나에게 한 말을 믿지 않았다.
 ③ 이것은 방콕에서 가장 큰 건물들 중 하나이다.
 ④ 큰 배낭을 메고 있는 소녀는 나의 언니이다.
 ⑤ 그가 파티에 초대된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22 '그 작가의 책'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뉴베리상을 수상한 책의 작가는 추리 소설을 써 오고 있다.
- 23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을 이용해 영작한다.
- 24 어법상 옳은 문장은 ㉠㉡㉢이다. ㉠은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이 주어로 쓰일 경우 단수 동사가 옴으로 are를 is로 고쳐 써야 한다. ㉡는 the nu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ose를 who[that]로 고쳐 써야 한다.
 ㉢ 그는 어머니가 작가인 소녀이다.
 ㉣ 그녀는 금메달을 딴 소녀를 인터뷰했다.
 ㉤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들 중 하나이다.
- 25 '그 그림의 색'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ose를 of which로 바꾸고 명사에 정관사 the를 붙인다.
 우리는 색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그림에 감명 받았다.
- 26 「부분 표현 + of + 명사」 구문이 주어로 쓰이면 동사는 of 뒤의 명사의 수에 일치 시키므로 takes를 take로 고쳐 써야 한다.
 이번 학기에 학생들 중 절반이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듣는다.
- 27 '집의 지붕'이 장미로 덮여 있는 것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이용해 영작한다. 따라서 ④가 적절하며,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 of which로 바꾸고 명사에 정관사 the를 붙이므로 ⑤의 of which roof는 of which the roof라고 써야 적절하다.
- 28 ⑥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을 취하므로 is this를 this is로 고쳐 써야 한다.
- 29 새로운 전학생을 도와주는 일로 귀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맥락이므로 ③ amazed(be amazed with: ~에 놀라다)를 bothered(be bothered with: ~를 하느라 귀찮아하다)로 바꿔 써야 한다.
- 30 가정법 과거완료(「If + 주어 + had + 과거분사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have + 과거분사 ~.」)에 맞게 영작한다.
- 31 Mikhail은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③ 'Mikhail은 Jiho만큼 한국말을 잘한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이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다.
 ② 새로운 외국인 학생은 수미네 반에 왔다.
 ④ 수미는 Perm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⑤ 준호의 옆에 빈자리가 있다.
- 32 무관심과 무지가 합쳐지면 편견이 생긴다는 맥락이 자연스러우므로 ㉠ tolerance(관용)를 prejudice(편견)로 바꿔 써야 한다.
- 33 준호는 Mikhail이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학생들처럼 Mikhail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A)에는 uncomfortable(불편한), (B)에는 indifference(무관심)가 적절하다.

- ① 호의적인 호기심
- ② 편안한 호기심
- ③ 불편한 관심
- ④ 편안한 무관심

- 34 동명사 주어(Being)는 단수 취급하여 단수 동사가 오는 것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in itself: 본래, 그 자체로
- 35 ③ this Friday라고 했으므로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을 뜻한다.
- 36 Bowling(질)은 누군가에게 인사하거나 존경을 표하기 위해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행동이므로 ④ backward(뒤쪽으로)를 forward(앞으로)로 바꿔 써야 한다.
- 약수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이지만, 서로를 떠날 때나 합의를 할 때에도 쓰인다.
 - 표용은 사랑이나 우정을 보여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양팔을 두르는 행동이다.
 - 볼 입맞춤은 친밀함을 나타내고, 축하를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이다.
 - 절(머리나 허리를 숙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사하거나 존경을 표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굽히는 행동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인사들 중 하나이다.
 - 합장은 몸을 약간 숙이고 손바닥을 함께 모으는 것이다. 합장은 태국에서 정식으로 집에 들어갈 때 전통적으로 행해진다.
- 37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을 이용해 영작한다.
- 38 문화마다 다양한 인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서로 다른 문화에서 다양한 인사법'이 적절하다.
- ① 의견의 차이
 - ③ 서양 문화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방법
 - ④ 다른 문화에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의 중요성
 - ⑤ 다른 문화에서 명절을 기념하는 전통적인 방식
- 39 주어인 글은 학생들이 환영 점심 식사의 날에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그 다음으로 (C) 이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카트를 가지고 들어오는 내용이 오고, (B) 학생들이 큰 그릇 안에 하얀 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후 당황하는 내용이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A) 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40 ⑥ 부사구(On the cart)가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도치 구문으로 a big bowl이 주어이므로 were를 단수 동사 was로 고쳐 써야 한다.
- 41 이 선생님이 비빔밥을 통해 학생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모르는 척 "서로 완전히 다른 재료인데 어떻게 다른 재료들이 함께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걸까요?"라고 질문한 것이므로 ④ solemnly(진지하게, 엄숙하게)를 innocently(천진난만하게)로 바꿔 써야 한다.
- 42 큰 그릇 안에는 하얀 밥만 있었으므로 ③ '큰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 ② 학생들은 이 선생님이 큰 그릇이 담긴 카트를 가져오셨을 때 신이 났다.
 - ④ 지호는 비빔밥에서 무엇이 멋진 새로운 맛을 만드는지 알고 있었다.
 - ⑤ 수미는 비빔밥에서 각각의 재료의 역할을 완벽히 이해했다.
- 43 주어인 문장은 '그녀는 교실 밖으로 나가서 다른 모든 재료가 들어 있는 다른 카트를 가지고 들어오셨다.'라는 뜻으로 재료들을 섞기 전에 재료들이 있는 다른 카트를 가져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44 (A)는 학생들은 큰 손가락으로 교대로 모든 재료들을 섞었다는 맥락이므로 all the ingredients를, (B)는 서로(학생들)의 차이점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맥락이므로 students를 가리킨다.
- 45 각각의 재료가 모여서 하나의 맛있는 음식인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각 학생들이 모여 멋진 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② '우리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가 적절하다.
- ① 우리는 비빔밥을 알맞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③ 교사들은 학급에서 그들의 학생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④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⑤ 비빔밥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재료들을 섞는 것이 필요하다. (discriminate: 차별하다)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 01 ③ 02 (1) gaze (2) empty (3) confidence (4) cheer 03 ④
- 04 feel at home 05 ③ 06 sign
- 07 (1) embrace (2) ignorance (3) indifferent 08 take turns
- 09 ① 10 ① 11 ② 12 ② 13 ④ 14 ②
- 15 ③ 16 ③
- 17 (1) are → is (2) businessman → businessmen
- 18 (1) The student who[that] grew up in Ireland spoke perfect English.
(2) The boy whose family was in Canada for vacation was alone in his house.
- 19 ③ 20 whose 21 ③ 22 ⑤
- 23 (1) the biggest changes is (2) Each of the family members is
- 24 ③ 25 ① 26 ⑤
- 27 (1) is consisted → consists (2) pressing → pressed 28 ②
- 29 ④ 30 ③ 31 ③ 32 ④ 33 ⑤
- 34 when apathy joins hands with ignorance, prejudice is born
- 35 ⑤ 36 there wasn't a drop of concentration in the students' eyes
- 37 come → coming 38 was 39 ⑤
- 40 It's the other ingredients that make bibimbap taste so great
- 41 have → has 42 uncover 43 ①
- 44 all the ingredients
- 45 Tomorrow would be different, but in a good, bibimbap way.

- 01 ③은 '무관심한 : 무관심'이라는 뜻의 '형용사 : 명사'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 : 명사' 관계이다.
- ① 나타나다 : 나타남
 - ② 무시하다 : 무지
 - ④ 박수를 치다 : 박수
 - ⑤ 집중하다 : 집중
- 02 (1) 끈임 없이 몰두하는 눈길: 응시(gaze)
(2) 어떤 것 또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비어 있는(empty)
(3)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confidence)
(4) 동의나 응원의 큰 외침을 주다: 응원하다(cheer)
- 03 disrespectful은 '무례한'이라는 뜻으로 ④ impolite와 바꿔 쓸 수 있다. 한국에서 나이든 분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 ① 우아한
 - ② 정직하지 못한
 - ③ 전체의
 - ⑤ 무관심한
- 04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feel at home이며,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feel)이 오는 것에 유의한다.
- 05 ③ '줄을 서다'라는 뜻의 표현은 get in line이다.
- ① 자주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more often than not: 자주, 대개)
 - ② 그녀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아주 분명하다.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 ③ 모든 사람은 그 파이를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
 - ④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draw attention: 관심을 끌다)
 - ⑤ 인터넷은 거짓 정보와 인신공격으로 넘쳐난다. (be flooded with: ~으로 넘쳐나다)
- 06 sign은 '징후, 조짐; 간판, 표지판; 몸짓'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 그 학생이 즉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좋은 조짐이다.
 - 벽의 표지판에는 '이 방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다.
- 07 (1) embrace: 받아들이다
(2) ignorance: 무지 (racist: 인종 차별주의자(의))
(3) indifferent: 무관심한

uncover: 뚜껑을 열다, dishonest: 정직하지 못한, concentration: 집중

- 08 '교대로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take turns이다.
- 09 빈칸 뒤에 그것들은 둥글고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다고 나오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①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니?'가 적절하다.
A: 마트로시가 인형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니?
B: 아니, 그게 무엇이니?
A: 나무로 만든 러시아 인형이야.
B: 그래?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니?
A: 둥글고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어.
② 마트로시가 인형을 좋아하니?
③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④ 왜 마트로시가 인형을 좋아하니?
⑤ 마트로시가 인형을 어디서 얻었니?
- 10 문화 충격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노출될 때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감을 가리키므로 ① familiar(익숙한)를 unfamiliar(익숙하지 않은)로 바꿔 써야 한다.
- 11 문화적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분의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문화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② '여러분의 문화와 다른'이 적절하다.
① 여러분의 문화와 같은
③ 흥미로운 사실들로 가득 찬
④ 다양한 문화에서 보편적인
⑤ 차이점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 12 '~해 본 적 있니?'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Have you ever + 과거분사 ~?'는 경험을 물을 때 사용한다.
A: 왈츠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니?
B: 그런 것 같아. 그것에 대해 말해 줄래?
A: 전통적인 오스트리아 춤이야. 정말 우아해.
B: 흥미로운 걸. 왈츠 추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니?
- 13 ④ 중국 여행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에 '물론이지! 나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라는 대답은 어색하다.
① A: 홀라춤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
B: 응. 전통적인 하와이의 춤이야.
② A: 페루의 마추픽추에 가 본 적이 있니?
B: 아니.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정말 보고 싶어.
③ A: 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어.
B: 뭐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
⑤ A: 나의 이집트 여행을 위해 조언 좀 해 줄래?
B: 물론이지! 이집트에서는 연장자 앞에서 다리를 꼬면 안 돼.
- 14 ② '매우 ~하고 싶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I can't wait to + 동사원형'이다.
A: 나의 미안마 여행을 위해 조언 좀 해 줄래?
B: 물론이지. 그곳에서 사원을 방문할 계획이니?
A: 응. 미안마의 아름다운 사원을 정말 방문하고 싶어.
B: 사원에서는 반바지를 입으면 안 돼.
A: 그래? 몰랐어. 왜 그런 거야?
B: 그건 종교적인 장소에서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거든.
A: 꼭 기억할게.
- 15 이집트에서 연장자 앞에서 다리를 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③ '그건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① 그건 무례하다는 뜻이야.
② 그건 예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④ 그건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
⑤ 연장자 앞에서 다리를 꼬는 것은 예의 바르다고 여겨지지 않아.
- 16 (A) '그 기숙사의 거주자들'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of which)로 쓸 경우 명사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야 함)가 적절하다.
나는 여러 나라에서 온 거주민들의 기숙사에 살고 있어.
(B) 선행사 the girl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that)가 적절하다.
너는 Jane과 John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저 소녀를 알고 있니?

- (C) 선행사 the bicycle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이것은 그녀가 어제 나에게 사 준 자전거이다.
- 17 (1)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이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해서 단수 동사가 오므로 are를 is로 고쳐 써야 한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은 2주 후에 파리로 이사를 갈 것이다.
(2)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이므로 businessman을 businessm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지난주 나는 일본에서 온 가장 친절한 사업가들 중 한 명을 만났다.
- 18 (1) 선행사 studen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that)를 이용한다.
아일랜드에서 자란 그 학생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다.
(2) '그 소녀의 가족들'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이용한다.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낸 그 소년은 그의 집에 혼자 있었다.
- 19 ③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이므로 painting을 paintings로 고쳐 써야 한다.
①②⑤ 「all[some / most / half / part / the rest / the majority / 분수] + of + 명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 동사는 of 뒤의 명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④ 「each of the + 복수 명사」 구문이 주어로 쓰일 경우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를 쓴다.
① 종이의 나머지는 탁자 위에 있다.
② 우유의 일부가 싱크대 위에 얼질러졌다.
④ 이 책의 각 저자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전문가이다.
⑤ 이 도시 사람들의 3분의 2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 20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는 whose로 바꿔 쓸 수 있다. whose를 of which로 바꿔 쓰는 경우, 명사 앞에 정관사 the를 붙이므로 빈칸에서는 the를 쓰지 않는다. 이곳은 베를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주인인 식당이다.
- 21 어법상 옳은 문장은 ㉠㉡㉢이다. ㉠은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이므로 building을 buildings로 고쳐 써야 하고, ㉡는 whom을 선행사 the ma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that)로 고쳐 써야 한다.
㉢ 내가 겨울캠프에서 만난 소녀는 Lisa이다.
㉣ 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들 중 하나는 서울이다.
㉤ 메뉴가 아주 다양한 카페에 가자.
㉥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이다.
㉦ 나는 학교 앞에서 너의 형과 닮은 남자를 보았다.
- 22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역사가 길다
② 건물들이 정말 크다
③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
④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
⑤ 운동장 주변에 많은 꽃이 있다
- 23 (1)(2)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와 「each of the + 복수 명사」 구문이 주어로 올 경우 단수 동사를 쓰는 것에 유의한다.
- 24 '몇몇 문제들의 결과'가 심각한 것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이용한다. 따라서 ③이 적절하며, whose를 of which로 바꿔 쓰는 경우 명사 앞에 정관사 the를 써야 하므로 ⑤의 consequences는 the consequences로 고쳐 써야 한다.
- 25 「each of the + 복수 명사」 구문을 이용해 영작하면 Each of the four Korean representatives is going to deliver a speech for the opening event.이므로 일곱 번째로 오는 단어는 is이다.
- 26 합장(wai)은 태국에서 정식으로 집에 들어갈 때 전통적으로 행해진다든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 informally(비공식적으로)를 formally(정식으로)로 바꿔 써야 한다.
- 27 (1) consist of는 '~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consist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2) 손바닥(palms)은 놀리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pressed로 고쳐 써야 한다.
- 28 ㉠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이므로 students로 고쳐 써야 한다.
- 29 주어진 문장은 '그들은 전학생을 도와주는 귀찮은 일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내용

으로 빈자리가 있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바로 뒤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0 Mikhail은 새로 전학 온 학교의 아이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아서 당황하고, 준호는 새로운 학생을 도와줘야 하는 일을 맡게 되어 짜증이 난 것으로 보므로 두 사람의 심경으로는 ③ '당황한 짜증이 난'이 적절하다.
 ① 감사하는 즐거운
 ② 즐거운 긴장한
 ④ 긴장한 기쁜
 ⑤ 흥분한 좌절한
- 31 ㉠ '몇몇 학생들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이라는 뜻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고쳐 써야 한다.
- 32 무관심한 것이 그 자체로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D) good(좋은)을 bad(나쁜)로 바꿔 써야 한다.
- 33 주어인 문장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준호의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내용으로 그가 Mikhail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내용 바로 뒤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4 '생겨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be born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apathy: 무관심/ignorance:무지/prejudice: 편견
- 35 전학을 위한 환영 점심 식사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이 선생님이 작년에 요리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는 내용의 ⑥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 36 '집중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의 표현을 drop(소량)을 이용해 영작한다.
- 37 문장의 동사는 leaped out이므로 come을 runner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 com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8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On the cart)와 부사(Inside)가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도치 구문으로 주어가 단수이므로 글의 전체 시제에 맞게 단수 동사의 과거형 was가 적절하다.
- 39 각 재료는 고유의 특별한 맛과 색,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함께 섞일 때 각각의 합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체를 만든다는 맥락이므로 ⑤ smaller(더 작은)를 greater(더 훌륭한)로 바꿔 써야 한다.
- 40 it ~ that 강조 구문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을 it과 that 사이에 위치시킨다.
- 41 「each + 단수 명사」는 '각각의 ~'라는 뜻으로 단수 취급하므로 have를 단수 동사 has로 고쳐 써야 한다.
- 42 '무언가를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거나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uncover(뚜껑을 열다)이다.
- 43 ㉠ 언급한(mentioned) 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과거완료(had + 과거분사)를 사용하므로 hadn't로 고쳐 써야 한다.
- 44 them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all the ingredients(모든 재료들)를 가리킨다.
- 45 '~한 방식으로'라는 뜻을 나타낼 때 전치사 in을 이용한다.

수능형으로 끝내기

p.048-053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③
07 ④	08 ⑤	09 ④	10 ⑤	11 ③	12 ④
13 ②	14 ③	15 ⑤	16 ②	17 ③	18 ⑤

- 01 ㉠ 전학을 도와주는 귀찮은 일을 원하지 않았다는 맥락이므로 수능형인 to be bothered로 고쳐 써야 한다.
- 02 주어인 문장은 '하지만 3번에는 일본에서 온 Yoshiko가, 8번에는 뉴질랜드에서 온 Terry가 있었다.'라는 뜻으로 '만약 Mikhail이 이 학교의 첫 번째 외국인 학생이었다면 다른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라는 문장 바로 뒤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3 다른 반에 외국인 학생들이 있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가진 학생들이 여러 명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② multicultural(다문화적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부자연스러운 ③ 농업의 ④ 단일 문화의 ⑤ 다재다능한

04 ㉠ There were several students whose mothers or fathers were from countries other than Korea.에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가진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Mikhail은 키가 크다.
 ② 수미는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 중 한 명이다.
 ③ Mikhail은 준호 옆자리에 앉았다.
 ④ 준호가 지호를 노려보았다.
- 05 ㉠ say 뒤에 주어와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6 단지 여러분의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문화의 생각이 틀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③ '틀린'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멋진 ② 옳은 ④ 무서운 ⑤ 특이한
- 07 문화 충격을 받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는 ④ '문화 충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적절하다.
 ① 문화적 적응의 단계
 ② 문화 충격의 정의
 ③ 문화 충격을 극복하는 방법
 ⑤ 남녀 사이에 문화적 차이
- 08 학생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으므로 ㉠ apathy(무관심)를 applause(박수)로 바꿔 써야 한다.
- 09 새로 온 외국인 학생과 반 아이들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학교에 또한 많은 외국인 선생님들이 있다는 내용의 ④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 10 학생들은 새로운 전학을 환영하는 것에 대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 우리를 잘하셔서 기뻐했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⑤ '새로운 학생을 환영하는 것에 대해 기쁜'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새로운 메뉴에 만족하는
 ②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③ 그들의 친구들에 둘러싸인
 ④ 새로운 학생에 놀란
- 11 (A) 점심시간이 되자 반 학생들이 출발대에서 나오는 올림픽 달리기 선수들처럼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내용이므로 simultaneously(동시에)가 적절하다.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B) 그릇의 덮개를 열었다는 의미이므로 uncovered(uncover: 뚜껑을 열다)가 적절하다. (cover: 덮다)
 (C) 수미의 말에 이 선생님이 대답하셨다는 의미이므로 replied(reply: 대답하다)가 적절하다. (apply: 적용하다)
- 12 주어인 문장은 '학생들은 당황했다.'라는 뜻으로 그릇 안에 하얀 밥 이외에 아무 것도 없어서 학생들이 당황한 것이므로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3 그것들(재료들)이 함께 섞일 때 각각의 합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체를 만들어 낸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방식 ③ 재료 ④ 구조 ⑤ 차이
- 14 음식에 대해 말을 해서 입에 침이 고인다는 맥락이므로 ③ dry(건조한, 마른)를 water(군침이 돌다)로 바꿔 써야 한다.
- 15 학생들이 비빔밥을 통해 서로 다른 개성들이 모여서 더 훌륭한 전체가 되는 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빈칸에는 ⑤ '그들은 차이를 인정하고 즐기기 시작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embrace: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① 그들은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② 그들은 그들의 선생님이 자랑스러웠다.
 ③ 그들은 이 선생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④ 그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웠다.
- 16 처음에 학생들은 비빔밥에 대한 선생님의 의도를 (A)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 선생님의 노력은 학생들이 차이를 (B)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① 깨닫다 거절하다
 ③ 신경을 쓰다 무시하다
 ④ 지지하다 무시하다
 ⑤ 인식하다 동의하지 않다
- 17 ㉠ 전치사 of의 목적어이므로 동명사 put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악수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이지만, 서로를 떠날 때나 합의했을 때에도 쓰인다.
- 볼 입맞춤은 친밀함을 나타내고, 축하를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이다.
- 포옹은 사랑이나 우정을 보여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양팔을 두르는 행동이다.
- 절(머리나 허리를 숙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사하거나 존경을 표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굽히는 행동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인사이다.
- 합장은 몸을 약간 숙이고 손바닥을 함께 모으는 것이다. 합장은 태국에서 정식으로 집에 들어갈 때 전통적으로 행해진다.

18 합장은 태국에서 정식으로 집에 들어갈 때 전통적으로 행해진다고 했으므로 ㉔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서술형으로 끝내기

p.054~056

- 01 (1) T (2) F (3) F
 02 ㉔ → other than
 03 (A) Sumi was one of the most smartest students
 (B) There were several students whose mothers or fathers were
 04 If I had not watered the plant too often, it would not have died.
 05 ㉔ what[which] ㉔ is
 06 (m)ore often than not
 07 It wasn't because they were excited about welcoming the new student, but because they knew
 08 ㉔ was ㉔ to create ㉔ hadn't thought
 09 ㉔ → sum
 10 All this talk about food is making my mouth water.
- 01 (2) 기사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 여행 계획은 이 대화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 02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이 있고,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 출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가진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맥락이므로 ㉔ rather than(~라기 보다는)을 other than(~ 이외에)으로 바꿔 써야 한다.
- 03 (A)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이므로 student를 students로 고쳐 써야 한다.
 (B) '학생들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이므로 who를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고쳐 써야 한다.
- 04 가정법 과거완료(「If + 주어 + had + 과거분사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have + 과거분사 ~.」)를 이용해 영작한다.
- 05 ㉔ 'Mikhail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간접의문문이므로 whose를 what[which]으로 고쳐 써야 한다.
 ㉔ 동명사(Being)가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하므로 are를 is로 고쳐 써야 한다.
- 06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대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more often than not(대개, 자주)이다.
- 07 '~ 때문이 아니라 ... 때문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 not because ~ but because ...를 이용해 영작한다.
- 08 ㉔ 부사구(Inside)가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도치 구문으로 주어와 단수이므로 was로 써야 한다.
 ㉔ 다른 맛들이 모여서 훌륭한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낸다는 맥락이므로 '결국 ~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결과)인 to create로 써야 한다.
 ㉔ 언급한(mentioned) 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had + 과거분사) hadn't thought로 써야 한다.
- 09 그것들이 함께 섞일 때 각각의 합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체를 만들 수 있다는 맥락이므로 ㉔ multiplication(곱셈)을 sum(합, 총합)으로 바꿔 써야 한다.
- 10 make는 사역동사이므로 동사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취하고, water가 '군침이 돌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시 쓰기

p.057~061

- 01 Ms. Lee walked into her classroom, followed by a tall boy.
 02 She said, "We have a new student today. Say hello to Mikhail."
 03 She wrote "Perm" on the board.
 04 "This is where Mikhail is from. Does anyone know where this is?"
 05 A voice from the back said, "In a beauty salon!"
 06 A few students laughed.
 07 Sumi answered confidently, "It's in Russia."
 08 Sumi was one of the smartest students in the class.
 09 "That's right. Mikhail's family is from Russia."
 10 He doesn't speak Korean well.
 11 Let's help him feel at home.
 12 Are there any empty seats?"
 13 There were a few empty seats, but no one said anything.
 14 They didn't want to be bothered with helping the new student.
 15 Jiho yelled, "There! There's an empty seat next to Junho."
 16 "Okay, Mikhail, go sit next to Junho over there," said Ms. Lee.
 17 Junho gave Jiho a stare.
 18 If Mikhail had been the first foreign student at this school, he might have drawn more attention from the other students.
 19 But there was Yoshiko from Japan in Class 3 and Terry from New Zealand in Class 8.
 20 Even Ms. Lee's class was very multicultural.
 21 There were several students whose mothers or fathers were from countries other than Korea.
 22 Mikhail sat down next to Junho, and they exchanged uncomfortable smiles.
 23 It wasn't that Junho didn't like Mikhail.
 24 Junho just wasn't interested in him, like the other students.
 25 He wasn't interested in where Perm was.
 26 He didn't care about what language Mikhail spoke.
 27 This indifference toward other cultures was an increasing problem at Junho's school.
 28 Being indifferent is not a bad act in itself.
 29 But more often than not, when apathy joins hands with ignorance, prejudice is born.
 30 Ms. Lee said, "Since we have a new student, let's have a special welcome lunch for him this Friday."
 31 "I'll make *bibimbap* for all of you. How does that sound?"
 32 The room was flooded with applause as the students exchanged high fives.
 33 It wasn't because they were excited about welcoming the new student, but because they knew that Ms. Lee was an amazing cook.
 34 A few days later, the day of the welcome lunch came.
 35 By 11:30 a.m., there wasn't a drop of concentration in the students' eyes.
 36 The lunch bell rang, and the class, like Olympic runners coming out of the starting blocks, simultaneously leaped out of their seats.
 37 The class cheered as Ms. Lee came into the classroom with a big cart.
 38 On the cart was a big bowl with a silver cover.
 39 Ms. Lee said, "Get in line for your *bibimbap*."
 40 The students got in line and Ms. Lee uncovered the big bowl.
 41 Inside was white rice and nothing else.
 42 The students were puzzled.

06 Beyond Korea

- 43 Sumi cried, "You said we were going to have *bibimbap* today!"
- 44 Ms. Lee replied, "Yes, I did. It's a new kind of *bibimbap*."
- 45 Junho cried, "No way! That's not *bibimbap*."
- 46 Ms. Lee asked, "What's wrong? Isn't the rice enough?"
- 47 "No! It's the other ingredients that make *bibimbap* taste so great!" Taemin yelled.
- 48 "How can the other ingredients taste good together when they are so different from one another?" Ms. Lee asked innocently.
- 49 Jiho said, "The different tastes come together to create a wonderful new taste."
- 50 "That's right. Each ingredient has its own special taste, color and feel.
- 51 But when they are mixed together, they create a whole which is much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said Sumi.
- 52 Junho said, "I see your point. Our classroom is just like a bowl of *bibimbap*."
- 53 "That's an interesting idea. I hadn't thought about that until you mentioned it," said Ms. Lee as she tried to hide her smile.
- 54 She went outside the classroom and brought in another cart with all the other ingredients.
- 55 She said, "All this talk about food is making my mouth water. Let's mix it up!"
- 56 The students put all the ingredients in the big bowl and took turns mixing them up with big spoons.
- 57 Even Mikhail had a chance to mix his first *bibimbap*.
- 58 As the students gathered in a circle eating *bibimbap* that day, they got to know Mikhail and one another better.
- 59 They began to embrace and enjoy their differences.
- 60 Tomorrow would be different, but in a good, *bibimbap* way.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64

01 ③

02 (1) representative (2) prosperous (3) construction (4) authority

03 ④ 04 ②

- 01 ③은 '모으다: 흠뻑리다'라는 뜻의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시대, 시기 ② 특징, 특성 ④ 장식하다 ⑤ 인기
- 02 (1) representative(대표하는): 계급, 무리 또는 다양한 의견의 대표적인
(2) prosperous(번영한): 물질적 차원에서 성공한; 재정적으로 번성하는
(3) construction(건설): 특히 건물, 다리 등과 같은 무언가를 짓거나 만드는 일
(4) authority(권위): 명령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권력이나 권리
- 03 take a look at: ~을 보다
take one's last breath: 끝나다; 숨이 끊어지다
• 제가 메뉴를 먼저 볼게요.
• 그들은 mp3 플레이어가 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
- 04 <보기>와 ②의 apply는 '적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할증 요금은 몇 시부터 적용되나요?
① 우리 집에 페인트칠을 하자.
② 그들은 그들에게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③ 너는 미국 비자를 신청했니?
④ Tony는 운전면허를 신청하고 싶다.
⑤ 그녀는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매우 기쁘다.

C 교과서 핵심 대화

p.065-066

01 ②

02 impressed with

- 01 I (just) can't wait!는 '빨리 ~을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기대를 표현할 때 쓴다.
02 감명 받은 것에 대해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에 대해 감명 받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be impressed with를 이용한다.

C 교과서 기타 대화

p.067

01 T

02 T

- 01 소녀는 한국의 배달 서비스가 인상 깊었다.
02 이 사진들은 약 100년 전 미국의 외교관에 의해 촬영되었다.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68

01 ③

02 ④

03 impressed with

- 01 ③은 '여러분들에게 내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라는 뜻으로 빈칸에 적절하지 않다. 「I can't wait to + 동사원형」은 '빨리 ~을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I'm looking forward to + (동)명사」, 「I really want to + 동사원형」, 「I'd love [like] to + 동사원형」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남: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국의 궁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첫 번째 왕궁이었습니다. 1395년 건설된 이후 계속해서 다섯 개의 주요 궁궐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궁입니다. 밤에 방문하여 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빨리 내부를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 ① 여러분들에게 내부를 보여주고 싶어요.
 - ② 여러분들에게 빨리 내부를 보여주고 싶어요.
 - ④ 여러분들에게 내부를 꼭 보여주고 싶어요.
 - ⑤ 여러분들에게 내부를 보여주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 02** 빈칸 뒤에서 '훌륭해. 나는 정말 여기가 좋아.'라는 말이 오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④ '한국에서 지내는 건 어때?'가 적절하다.
 소녀: 이봐, Mark. 한국에서 지내는 건 어때?
 소년: 훌륭해. 나는 여기가 정말 좋아.
 소녀: 정말 잘됐다.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니?
 소년: 내가 가는 곳마다 와이파이 연결이 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
 소녀: 뭐라고? 너희 나라에서는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니?
 소년: 물론 되긴 해. 하지만 와이파이기가 가능한 구역이 많지 않아.
 소녀: 흥미로운걸. 나는 몰랐어.
 소년: 그리고 대부분 훨씬 더 느려.
 소녀: 정말? 한국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구나.
 소년: 전적으로 동의해.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 ① 한국에서 지내는 걸 원하지 않았니?
 - ② 한국에서 지내고 싶니?
 - ③ 한국에서 지내는 건 어땠니?
 - ⑤ 왜 한국에서 지내는 게 좋니?
- 03** '~이 인상 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be impressed with이다.

G 교과서 핵심 | **문법**

p.069~070

01 did she know **02** could have completed, had saved

- 01** 부정어구(not until)가 문두에 와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며, 일반동사(know)가 쓰였으므로 시제에 맞게 did가 주어 앞으로 나온다.
- 02** 「could have + 과거분사」와 가정법 과거완료의 종속절 동사의 시제(had + 과거완료)에 유의한다.

G 교과서 핵심 | **문법 확인 문제 1**

p.071

01 ⑤
02 (1) had I seen the card (2) did he say about the rumor
 (3) could she believe
03 ④
04 (1) has he heard (2) have I expected (3) could we meet
 (4) was she late

- 01** 'A가 되어야 (비로소) B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Not until A B이다. 부정어구 not until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에 보내는 경우, 주어 동사가 도치되며, 일반동사(show)의 경우 시제를 맞춘 조동사(did)가 주어 앞에 나온다. (did she show up)
- 02**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1) 나는 밤에 집에 도착해서야 그 카드를 봤다.
 (2) 그는 그 소문에 대해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3) 그녀는 그녀가 들은 것을 전혀 믿을 수 없었다.
- 03** not until이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며, 일반동사(start)의 경우 시제를 맞춘 조동사(did)가 주어 앞으로 나온다.
 그녀가 돌아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비디오풀을 보기 시작했다.
- 04**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G 교과서 핵심 | **문법 확인 문제 2**

p.072

01 (1) She should not[shouldn't] have drunk too much water.
 (2) The nurse may[might] have given the pill to the patient.
 (3) Tiffany should have told her family and friends the truth.
02 (1) could have passed (2) should have gone
 (3) must have missed
03 (1) shouldn't (2) may (3) cannot have seen **04** ①

- 01** (1) should not[shouldn't] have + 과거분사: ~하지 말았어야 했다
 (2) may[might] have + 과거분사: ~이었을지도 모른다
 (3) should have + 과거분사: ~했어야 했다
- 02** (1) 가정법 과거완료에 맞게 「could have + 과거분사」로 쓴다.
 Jake가 한 번 더 기회를 얻었다더라면 그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2) 지난밤에 일찍 잤어야 했다는 의미이므로 「should have + 과거분사(~했어야 했다)」를 이용한다.
 Eric은 학교에 또 지각했다. 그는 어젯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야 했다.
 (3) 기차를 또 놓쳤음에 틀림없다는 뜻이므로 「must have + 과거분사(~이었음에 틀림없다)」를 이용한다.
 그녀는 오늘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기차를 또 놓쳤음에 틀림없다.
- 03** (1)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는 맥락이 자연스러우므로 「shouldn't have + 과거분사(~하지 말았어야 했다)」가 적절하다.
 나는 그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
 (2) 운전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맥락이 자연스러우므로 「may have + 과거분사(~이었을지도 모른다)」가 적절하다.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그녀는 운전을 해서 해변으로 가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3) 나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거기서 나를 봤을 리가 없다는 맥락이 자연스러우므로 「cannot have + 과거분사(~이었을 리가 없다)」가 적절하다.
 그녀는 거기서 나를 봤을 리가 없다. 나는 그때 집에 있었다.
- 04** '그의 농담이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했을 수도 있었다,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을 가진 ① 「could have + 과거완료」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R 교과서 기타 | **지문**

p.077

01 T **02** F

- 01** 한복은 사람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
- 02**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메이크업 수업이 있다. (→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메이크업 수업이 있음)

R 교과서 핵심 | **본문 다지기**

p.078~079

01 is called	02 which	03 it	04 for
05 ~를(을) 제외하고		06 that	
07 did paintings begin		08 ordinary	09 무명의
10 having	11 번영하는, 풍요로운		12 장수
13 misfortune	14 painting	15 subjects	16 to catch
17 respected	18 was painted	19 마치 ~처럼	20 가닥
21 제자리에 있지 않은		22 to express	23 expressing
24 was	25 In contrast to		
26 something comical		27 are gathered	28 looking
29 be tempted	30 쓰다듬다	31 적용하다	
32 오로지 한 관점에서만		33 called	34 to find
35 암시하다	36 끝나다; 숨을 거두다		37 가까이
38 that	39 could	40 명심하다	

- 01 ② 02 ① 03 ⑤
 04 (1) longevity (2) apply (3) decorate (4) strand 05 in
 06 ⑤ 07 ① 08 ② 09 ⑤ 10 ③ 11 ③
 12 ④ 13 I can't wait to learn *buchaechum!* 14 ② 15 ④
 16 (1) should have reported (2) must have practiced
 (3) could have completed
 17 ⑤
 18 Jodie could have bought the book, but she borrowed it from the library instead.
 19 had sat down Jay and I → had Jay and I sat down 20 ④
 21 Not until lunch did I talk to the English teacher in the classroom.
 22 (1) should have passed (2) Not only did she do her best 23 ①
 24 ④ 25 Not until, did she realize 26 (c)ould 27 ②
 28 ② 29 ④
 30 (A) *minhwa* (B) the original *minhwa* artists 31 ④ 32 ③
 33 (A) anonymous artists (B) common people (C) *minhwa* artists
 34 ④ 35 ② 36 ①
 37 It looks as if it will leap out of the painting at any moment.
 38 ③ 39 ⑤ 40 ①
 41 In contrast to the tiger painted by Kim Hongdo, this one does not look scary at all.
 42 ④ 43 ③ 44 ⑤ 45 ①

- 01 ②는 '고대의 : 현대의'라는 뜻의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부활 ③ 인상적인 ④ 관점 ⑤ 대표하는
- 02 ①의 영영풀이는 eternal(영원한)에 해당한다. anonymous(무명의, 익명의)의 영영풀이로는 made or done by someone whose name is not known or not made public(알려지지 않거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이름의 누군가에 의해 서 되거나 행해진)이 적절하다.
 ② 반영하다: 무언가의 존재나 본질을 보여주다
 ③ 시대: 사람의 일생이나 역사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
 ④ 보통의: 자주 발생하거나 많은 수나 양으로 존재하는
 ⑤ 신호를 보내다: 제스처, 행동 또는 소리의 수단으로 정보나 설명을 전달하다
- 03 ⑤ prosperous: 번영한, 번창하는
 ① 다시 활발해진: 다시 태어난 ② 고대의 ③ 영원한 ④ 인상적인
- 04 (1) longevity(장수): 개인의 삶의 오랜 지속
 (2) apply(적용하다):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시키다
 (3) decorate(장식하다): 특히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물건이나 장소에 무언가를 추가하다
 (4) strand((실 · 전선 · 머리카락 등의) 가닥): 밧줄, 끈, 실 등의 길이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섬유 또는 서로 꼬여 있는 섬유 묶음
- 05 in particular: 특히
 in the hope of: ~을 희망하며
 • 그는 특히 한국의 전래동화를 좋아한다.
 • 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희망하며 공부했다.
- 06 ⑤ 원작 소설과 대조적으로 영화는 흥미롭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In contrast of를 In contrast to(~와 대조적으로)로 바꿔 써야 한다.
 ① 나는 요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시도해 볼게. (give it a try: 시도하다)
 ② 학생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 할 수 있다. (be tempted to + 동사원형: ~하고 싶다)
 ③ 너는 들판에서 캥거루를 본 적 있니? (catch sight of: ~을 보다)
 ④ 시험을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keep in mind: 명심하다)
- 07 except for는 '~을 제외하고'라는 뜻으로 ① aside from과 바꿔 쓸 수 있다. 보초를 서기 위해 깨어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군인들은 밤에 잠을 잤다.
 ② 특히 ③ 그때 ④ ~와 대조적으로 ⑤ 언제라도, 금방이라도

- 08 ② at that time: 그때 / drought: 가뭄
 ① 한 번에 ③ 제때에 ④ 특별히, 특히 ⑤ 금방이라도, 언제라도, 아무 때나
- 09 한국에서의 방학이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 좋았다고 말하며, 특히 배달 서비스가 인상 깊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⑤ '인상 깊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혼란스러운 ② 우울한 ③ 실망한 ④ 관계가 있는
- 10 ①②④⑤는 '~하고 싶다'라는 뜻의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③은 '나는 그곳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어.'라는 뜻이다.
 (definitely: 분명히, 틀림없이 / folk: 민속의)
 ① 나는 정말 그곳에 가고 싶어.
 ② 나는 그곳에 가고 싶어.
 ④ 나는 정말 그곳에 가고 싶어.
 ⑤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 11 (A)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와이파이 연결이 인상적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③ I'm impressed with ~(나는 ~이 인상적이야.)가 적절하다.
 (B) 한국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라는 A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빈칸 뒤에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오므로 A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인 ③ I couldn't agree more.(나는 전적으로 동의해.)가 적절하다.
- 12 사진 속 무용수들이 부채춤을 추며 꽃 대형을 만들고 있다는 맥락이므로 ④ component(구성 요소)를 formation(대형)으로 바꿔 써야 한다.
- 13 '빨리 ~하고 싶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I can't wait to + 동사원형」이다.
- 14 소년으로부터 지역 문화 센터에서 부채춤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은 들은 소년 가 할 일로 적절한 것은 ② '부채춤 수강 신청하기'이다.
 ① 춤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③ 부채춤 독학하기
 ④ 새와 나비와 같은 예쁜 이미지 만들기
 ⑤ 꽃과 나비를 찾으러 가기
- 15 대중교통이 인상적이었으며 저렴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는 B의 대답으로 보아 빈칸에는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물어보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④ '그 장소에 방문하기 위해 너는 무엇을 했니?'는 적절하지 않다.
 ① 그것의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니?
 ②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니?
 ③ 무엇이 인상적이었니?
 ⑤ 대중교통의 어떤 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니?
- 16 (1) should have + 과거분사: ~했어야 했다
 (2) must have + 과거분사: ~이었음에 틀림없다
 (3) If + 주어 + had + 과거분사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have + 과거분사 ~. (~했었다면 ...했을 텐데.) / could have + 과거분사: ~했을 수도 있었다, ~했을지도 모른다
- 17 첫 번째 빈칸에는 「would have + 과거분사(~이었을 것이다)」의 have, 두 번째 빈칸에는 부정어(구) not이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도치 구문으로 현재완료(have + 과거분사)의 have가 들어가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have이다.
 • Hailey는 아마도 더 조심했을 것이다.
 • 나는 어제 이후로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다.
- 18 could have + 과거분사: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수도 있었다
- 19 부정어구 No sooner가 문두에 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데, 이때 과거완료(had + 과거분사)의 조동사 had가 주어 앞으로 도치된다. 따라서 had sat down Jay and I를 had Jay and I sat down으로 고쳐 써야 한다.
 Jay와 내가 탁자에 앉자마자 그의 휴대 전화가 울렸다.
- 20 '그녀는 늦잠을 자서 기차를 놓쳤다. 만약 그녀가 일찍 일어났다면 그녀는 기차를 탈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뜻으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의미의 ④ 「could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 21 부정어구 Not until이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것에 유의한다.
- 22 (1) 과거의 부사구(last month)와 함께 쓰려면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should have + 과거분사(~했어야 했다)」가 적절하다.

- (2) 부정어구 Not only가 강조되어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 23 부정어(구) never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Jane은 사람들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았다.
- 24 ④ 「must have + 과거분사」는 「~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했어야 했다」라는 뜻의 「should have + 과거분사」와 구별된다.
① 그녀는 버스를 잡았을지도 모른다. = 아마도 그녀는 버스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② 너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다. = 너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③ 그는 파티에 갈 수도 있었다. = 그는 파티에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④ 나의 남편은 우리의 방을 청소했음에 틀림없다. ≠ 나의 남편은 우리의 방을 청소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⑤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때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 그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다.
- 25 부정어구 Not until이 강조되어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그녀는 한참 후에야 그녀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 26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므로 「If + 주어 + had + 과거분사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have + 과거분사 ~(~했었다더라면 ...했을 텐데.)」에 맞게 영작할 때, 「~할 수 있었을 텐데」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could가 필요하다.
If I had had enough money, we could have bought the house.
- 27 어법상 옳은 문장은 ㉔이다. ㉔은 부정어(구) never가 문두에 와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므로 met을 meet로 고쳐 써야 한다. ㉕은 부정어(구) hardly가 문두에 와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므로 he could를 could he로 고쳐 써야 한다. ㉖는 부정어구 not until이 문두에 와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인데, 일반동사(know)가 왔으므로 was를 did로 고쳐 써야 한다.
㉔ 그는 시인일 뿐만 아니라 가수이다.
㉔ 그녀가 그 편지를 읽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 28 단지 민화가 우리의 벽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서 민화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맥락이므로 ㉔ appearing(appear: 나타나다)을 disappearing(disappear: 사라지다)으로 바꿔 써야 한다.
- 29 주어진 문장은 「예를 들어 민화는 오래된 인근 지역의 벽, 학용품, 휴대 전화 케이스 및 의류를 장식하는 이미지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민화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를 드는 문장이므로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0 (A)는 앞에서 언급한 *minhwa*, (B)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the original *minhwa* artists를 가리킨다.
- 31 ㉔ 부정어구 not until이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인데, 조선 시대 후기가 되어서야 그림이 보통 사람들의 집을 장식하기 시작했다는 과거의 내용이므로 과거형 did로 고쳐 써야 한다.
- 32 민화가 종종 보통 사람들의 생각, 꿈, 소원을 반영했다는 맥락이므로 ㉔ requested(request: 요구하다)를 reflected(reflect: 반영하다)로 바꿔 써야 한다.
- 33 (A)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anonymous artists(무명의 화가들), (B)는 앞 문장의 common people(보통 사람들), (C)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minhwa* artists(민화 화가들)를 가리킨다.
- 34 ㉔ 민화의 화가들이 무서운 동물을 그린 것은 불운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장수하는 풍요로운 삶을 희망하면서 그들의 그림에 10개의 장수의 상징을 사용했다. (longevity: 장수)
① 민화는 한국의 서민의 그림을 가리킨다.
② 비싼 가격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림을 거의 살 수 없었다.
③ 보통 사람들은 조선 시대 후기에 그림으로 자신들의 집을 장식했다.
⑤ 민화 속의 암수 새가 있는 아름다운 꽃은 행복한 결혼을 상징했다.
- 35 ㉔ 호랑이는 고대의 한국 그림에서 가장 자주 그려진 대상들 중 하나라는 맥락이므로 frequently(빈번한)가 적절하다. (infrequently: 드물게)
㉕ 호랑이의 털 한 가닥도 흐트러진 것이 없다는 맥락이므로 out of place(제자리에 있지 않은)가 적절하다. (out of order: 고장난, out of the question: 불가능한)
- 36 ㉕ 「each +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하므로 seem을 seems로 고쳐 써야 한다.
㉔ 분사구문으로 반복되어 생략된 주어 its tail이 표현하는 것이므로 expressed를 express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7 as if는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뜻으로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leap out: 뛰어나오다 / at any moment: 금방이라도
- 38 ㉔ 김홍도가 주로 호랑이를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39 (A) 문장의 주어가 The way이므로 단수 동사 was가 적절하다.
(B) 뒤에 명사(cat)가 오므로 looks를 전치사 like와 함께 써야 한다.
(C) 사물은 그려지는 것이므로 수동태(be동사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 40 조선 시대 후기에 무명의 화가에 의해 그려진 이 페이지의 호랑이를 보라는 맥락이므로 ㉔ unanimous(만장일치의)를 anonymous(무명의)로 바꿔 써야 한다.
- 41 in contrast to: ~와 대조적으로
not ~ at all: 전혀 ~가 아니다
- 42 지문과 ㉔의 apply는 「적용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① 우리는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② 그녀는 나무 조각에 접착제를 바르고 있다.
③ 그 페인트는 얇고 고르게 칠해져야 한다.
④ 새로운 규칙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적용된다.
⑤ 그들은 우리가 신문에 광고한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다.
- 43 민화에서 호랑이의 재미있는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는 ㉔ 「민화에서 호랑이의 흥미로운 특징들」이 적절하다.
① 민화의 독특한 기법들
② 민화에 그려진 다양한 대상들
④ 민화와 입체파의 비교 (cubism: 입체파)
⑤ 민화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방식
- 44 (A) be about to + 동사원형: 막 ~하려고 하다
(B) such + 형용사 + 명사
(C) 「~를 고려할 때」라는 의미의 분사구문이므로 현재분사 considering이 적절하다.
- 45 10 decades는 100년이므로 ㉔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p.092~103

- 01 ④ 02 (1) perspective (2) folk (3) movement (4) fortress
03 (1) exclusively (2) longevity (3) construction 04 ③
05 out of place 06 ② 07 ⑤ 08 ④ 09 ③
10 ② 11 ③ 12 ① 13 ⑤ 14 ④ 15 ③
16 ④
17 She could have gone directly to college, but she decided to travel for a year.
18 (1) I could → could I (2) she helped → did she help 19 ①
20 ㉔ → Not until ㉕ → did Susan find
21 (1) should have taken (2) could have told (3) must have eaten
22 ② 23 ⑤
24 (1) Not until she was fifteen years old had Helen ridden a horse.
(2) Not a single song did John compose after he came back to his work.
25 (1) could (2) should (3) must 26 did I see → I saw
27 and it 28 ② 29 ⑤
30 Not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did paintings begin to decorate the homes of common people.
31 ③ 32 eternal 33 ② 34 ② 35 ⑤
36 Even its tail is pointed upward, expressing authority. 37 ③
38 ④ 39 ⑤ 40 that *minhwa* has taken its last breath
41 ③ 42 ③
43 The photos you are about to see will take you back to Korea 10 decades ago.
44 ③ 45 ③

- 01 ④는 '보통의 : 독특한'이라는 뜻의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신호 ② 운 ③ ~을 알아차리다 ⑤ 반영하는
- 02 (1) perspective(관점): 무언가를 고려하는 특정한 방식
(2) folk(민속의): 지역이나 나라의 전통적인 예술이나 문화와 관련이 있는
(3) movement(운동): 정치적, 사회적 또는 예술적인 움직임에 의해 착수한 캠페인
(4) fortress(요새):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크고 튼튼한 건물이나 건물들의 무리
- 03 (1) exclusively: 오로지
(2) longevity: 장수
(3) construction: 건설, 공사
movement: 운동, permanently: 영구히, fortress: 요새
- 04 vicious와 fierce는 '사나운'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사나운 개가 공원에서 나를 쫓아왔다.
① 온화한 ② 길들여진 ④ 온건한 ⑤ 삼가는
- 05 out of place: 제자리에 있지 않은 (feel out of place: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을 느끼다)
- 06 ② '특별히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라는 뜻으로 on particular를 in particular(특별히, 특히)로 바꿔 써야 한다.
① 나는 그녀의 갈색 곱슬머리를 봤다. (catch sight of: ~을 보다)
③ 그는 그녀에게 전화로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다. (be tempted to + 동사원형: ~하고 싶다)
④ 설탕과 카페인을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것을 명심하세요. (keep in mind: 명심하다) (aggravate: (질병 등을) 악화시키다)
⑤ 노래 이외에도 몇몇 구성원들은 연기로 그들의 활동 영역을 넓혔다. (aside from: ~ 이외에도)
- 07 ⑤ '먼 미래와 반대로 과거 또는 예전 시대에 관한'은 ancient(고대의)에 대한 영영말로, modern(현대의)은 'of the present time(오늘날의)'로 풀이될 수 있다.
① 오로지: 특정 사물 또는 집단에 국한된
② 특징: 무언가의 눈에 띄는 특징이나 측면
③ 인상적인: 크기, 품질, 기술로써 감탄을 자아내는
④ 영구히: 무한히 지속되거나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 08 eternal과 ①②③⑤는 모두 '영원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반면, ④ temporary는 '일시적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당신은 영원한 삶을 믿나요?
- 09 ③ perspective: 관점, 시각
① 시대 ② 명성 ④ 반영 ⑤ 장식
- 10 주어진 대화는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와이파이 연결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서 자신의 나라에서는 와이파이 연결이 되는 곳이 많지 않다는 (B)가 오고, 흥미롭다는 대답의 (A)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11 ③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은 much, even, still, far, a lot 등이다.
⑥ 뒤에 복수 명사가 오는 것으로 보아 many가 적절하다. (much + 셀 수 없는 명사)
- 12 한국의 배달 서비스가 인상적이었다는 내용으로, 두어 시간이면 식료품을 배달해 준다는 소년의 말에 대한 소녀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이다.
㉠ 정말 놀랍다!
㉢ 오, 믿을 수 없어!
㉡ 너 농담하고 있는 거지!
㉣ 그렇게 말해주다니 참 친절하구나.
㉤ 나는 동의해.
①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야.
- 13 (A) I'd love[like] to + 동사원형: 나는 ~하고 싶다
(B) I can't wait to + 동사원형: 나는 ~을 빨리 하고 싶다
- 14 ①②③⑤는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④는 '나는 그 영화에 아주 감명 받았다.'라는 뜻이다.

- 15 한국의 미용 산업과 인터넷에 대해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 것이라는 대화이므로 빈칸에는 ③ '나는 전적으로 동의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cosmetic: 화장품)
① 흥미롭겠구나!
② 나는 정말 기대되!
④ 나는 여행이 기대되.
⑤ 너는 한국을 꼭 방문해야 해.
- 16 '만약 여러분이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을 듣는다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의 대답이므로 ④ '조선 시대의 요새인 수원 화성에 꼭 가 봐.'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는 서예 수업을 정말 들어보고 싶어.
② 나는 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③ 나는 태권도를 배우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⑤ 나는 한국의 전통 노래인 판소리를 부르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 17 「could have + 과거분사」는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18 (1)(2) 부정어구(not until, not only)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1)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2) 그녀는 내 숙제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차로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 19 주어진 문장은 'Jeffery는 대회에서 1등을 했다.'라는 뜻이므로 바로 뒤에 ① '그는 열심히 노력했음에 틀림없다.'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② 그는 열심히 노력했을 수도 있었다.
③ 그는 열심히 노력했어야만 했다.
④ 그는 열심히 노력했을 리가 없다.
⑤ 그는 열심히 노력하지 말았어야 했다.
- 20 부정어구 Not until이 강조되어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Susan은 기차가 역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그녀의 외투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 21 (1) 나는 지난밤 집에 걸어오면서 훌쩍 젖었다. 나는 우산을 가져갔었어야 했다. (should have + 과거분사: ~했어야 했다)
(2) 그가 무대를 봤다면 그는 누가 공연을 하고 있었는지 너에게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could have + 과거분사: ~했을 수도 있었다)
(3) 그녀는 복통이 생겼다. 그녀는 어제 너무 많이 먹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 과거분사: ~이었음에 틀림없다)
- 22 ㉠㉡는 어법상 옳은 문장이다. ㉠는 부정어(구) never가 문두에 왔으므로 I have를 have I로 고쳐야 한다. ㉡는 부정어(구) seldom이 문두에 오므로 he goes를 does he go로 고쳐야 한다. ㉢는 부정어구 not until이 문두에 오므로 I realized를 did I realize로 고쳐 써야 한다.
㉣ 나는 그의 지갑을 결코 훔친 적이 없다.
㉤ 그는 교회에 거의 가지 않는다.
㉥ 그녀는 더 이상 내 앞에서 울지 않았다.
㉦ 나는 내 휴대 전화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 지난 월요일이 되어서야 나는 펜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 23 ㉤ Cameron의 친구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should not을 must로 고쳐 써야 한다.
① Amy는 영화관에 갔을지도 모른다.
② Peter는 현명하므로 그는 내 거짓말을 믿었을 리가 없다.
③ 그는 그렇게 늦게 거한 저녁을 먹지 말았어야 했다.
④ 당신은 집을 떠나기 전에 문을 잠갔어야 했다.
- 24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1) Helen은 그녀가 15살 때까지 말을 타 본 적이 없었다.
(2) John은 일에 복귀한 후에는 단 한 곡도 작곡하지 않았다.
- 25 (1) 그녀는 파리에 방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could have + 과거분사: ~했을지도 모른다)
(2) 그는 나의 노트북을 망가트렸다. 나는 그에게 그것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should not[shouldn't] have + 과거분사: ~하지 말았어야 했다)
(3) Alex는 그녀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그것을 어딘가에 떨어뜨렸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 과거분사: ~이었음에 틀림없다)

- 26 부정어구(not until)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이때 not until과 연결되는 부분은 도치되지 않는다.
내 눈으로 Christine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녀가 안전했다고 실제로 믿었다.
- 27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는 「접속사 +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 28 (A) 뒤에 to부정사와 의미상의 주어 「for + 목적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가주어 it이 적절하다.
(B) the fact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절이 나오므로 동격의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C)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므로 because가 적절하다. (because of + (동명사))
- 29 주어진 문장은 ‘그들은 또한 사람들을 불운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용, 호랑이, 심지어 네 개의 눈을 가진 개와 같은 무서운 동물들을 그리기도 했다.’라는 뜻으로 ‘They’는 *minhwa* artists를 가리키므로 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0 부정어구(not until)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 31 민화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 꿈 그리고 소원을 반영했다.
- 32 ‘영원히 지속되거나 존재하는; 끝이 없는’은 ‘영원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eternal이다.
- 33 주어진 글은 한국 그림에서 가장 자주 그려진 대상인 호랑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서 김홍도의 호랑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 (B)가 오고, 하지만 민화에서 호랑이가 그려지는 방식은 조금 달랐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호랑이 민화의 다른 특징들을 언급하는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34 ㉠ 산에서 호랑이를 쉽게 볼 수 있었다는 맥락이므로 sight(catch sight of: ~를 보다)가 적절하다. (insight: 통찰력)
㉡ 한 가닥의 털을 말하고 있으므로 strand(가닥)가 적절하다. (strain: 압박, 부담)
㉢ 사물이 오직 한 가지 관점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맥락이므로 object(물건, 물체)가 적절하다. (objection: 반대)
- 35 호랑이 위의 새도 호랑이와 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으므로 ⑥는 적절하지 않다.
- 36 소유격 its와 분사구문 expressing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37 김홍도와 민화 화가들의 호랑이 그림을 설명하며 민화 화가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는 ③ ‘화가들이 민화에서 호랑이를 묘사한 방식’이 적절하다.
①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
② 한국 호랑이들의 흥미로운 특징
④ 조선 시대 후기에 화가들의 창의성
⑤ 민화와 피카소 작품의 유사성과 차이점
- 38 ㉠ ‘원래 민화 화가들 중 누구도 그들의 그림의 인기를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이라는 맥락이므로 could로 고쳐 써야 한다.
「could have + 과거분사」: ~했을지도 모른다, 「should have + 과거분사」: ~했어야 했다
- 39 창의성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맥락이므로 ⑤ despair(절망)를 courage(용기)로 바꿔 써야 한다.
- 40 ‘민화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맥락이므로 mea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과 take one’s last breath(끝나다, 숨을 거두다)를 이용한다.
- 41 민화가 오래된 인근 지역의 벽, 학용품, 휴대 전화 케이스, 의류를 장식하는 이미지에 계속 존재하며 오늘날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여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③ ‘오늘날 한국의 문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한국의 호랑이
② 민화의 대중성
④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의 탄생
⑤ 유명한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그림들
- 42 민화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여 민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우리 가까이 민화가 여러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민화의 재탄생’이 적절하다.
① 우리 주변의 민화
② 민화의 다른 이야기

- ④ 한국 문화의 명성
⑤ 한국 민속 집들의 가치 있는 벽

- 43 photos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으며, decade는 10년을 뜻한다.
- 44 (A) 저렇게 오래된 사진이 어디에서 나왔지 궁금해 할 수 있다는 맥락이므로 wondering(wonder: 궁금해 하다)이 적절하다. (wander: 돌아다니다)
(B) 1900년대 초기에 촬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훌륭하다는 맥락이므로 quality(품질)가 적절하다. (quantity: 양)
(C) 이 사람은 이렇게 값진 사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 묻고 있으므로 priceless(가치 있는)가 적절하다. (valueless: 가치 없는)
- 45 ㉢ 그의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국 외교관이었다는 맥락이므로 diplomat을 수식하는 현재분사 wor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수능형으로 끝내기

p.104~109

01 ③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④
07 ④	08 ⑤	09 ④	10 ②	11 ③	12 ②
13 ②	14 ③	15 ⑤	16 ②	17 ①	18 ⑤

- 01 동사 painted를 수식해야하므로 형용사 ㉠ exclusive(전용의, 독점적인)를 부사 exclusively(오로지)로 고쳐 써야 한다.
- 02 민화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그림이며, 그들이 바라는 장수, 불운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행복한 결혼 생활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하므로 빈칸에는 ④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꿈, 소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화가의 어린 시절 소원
② 왕족의 다양한 관점
③ 동물과 식물을 향한 친근한 태도
⑤ 조선 시대 사람들이 가진 사후세계 이미지들
- 03 민화의 의미와 민화에 주로 나오는 상징적인 소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 ‘보통 민화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데 엄청난 노력, 집중 그리고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 04 조선 시대 유명한 화가들은 오직 왕과 정부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렸다고 언급하므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5 ④ 비슷한 기법은 사용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was used로 고쳐 써야 한다.
- 06 민화 화가들은 그들의 그림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법을 적용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④ ‘오직 한 가지 관점으로 그려진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그들 자신의 성격을 보여 준다
③ 흥미로운 것을 가진다
⑤ 사물의 내재적 본질을 표현한다
- 07 (A)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이므로 subjects가 적절하다.
(B) 마치 그것이 금방이라도 그림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보인다는 흐름이므로 as if(마치 ~인 것처럼)가 적절하다.
(C) each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므로 strand가 적절하다.
- 08 호랑이는 고대의 한국 그림에서 가장 자주 그려진 대상들 중 하나이면서도 종종 도시와 마을로 내려와 가축들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다고 언급하므로 빈칸에는 ⑥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존경받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사냥되고 길러지는
② 구조되고 보호받는
③ 칭송받으면서 무시받는
④ 공격받고 치료받는
- 09 주어진 문장은 ‘털 한 가닥도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뜻으로 바로 뒤에서 하나하나의 털을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strand: (실·전선·머리카락 등의) 가닥, 올, 줄 / fur: 털 / out of place: 제자리에 있지 않은)
- 10 ㉡는 김홍도가 그린 호랑이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제시된 민화 속의 호랑이를 가리킨다.
- 11 (A) 민화 속 호랑이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comical(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이 적절하다. (serious: 심각한)

(B) 민화 속 호랑이가 둥근 이빨을 가지고 있고, 앞 다리는 수줍게 모여 있으며 귀여운 꼬리는 두 다리 사이에 있다는 것으로 보아 마치 친근한 고양이 같다는 맥락이므로 friendly(친근한)가 적절하다. (unfriendly: 비우호적인, 불친절한)

(C) 누구라도 이 호랑이를 보면 쓰다듬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는 맥락이므로 tempted(be tempted to: ~하고 싶다)가 적절하다. (attempt: 시도하다).

- 12 제시된 민화 속 호랑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민화 속 호랑이의 특징'이 적절하다.
 ① 호랑이를 그리는 방법
 ③ 고양이와 호랑이의 유사점
 ④ 김홍도의 그림 스타일 따라하기
 ⑤ 민화와 유명한 작품들 사이의 차이점
- 13 주어진 글은 '오늘날 한국 가정의 벽에서 민화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것이 민화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B)로 이어지고, 민화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에 대한 예시인 (A)가 오며, 마지막으로 민화가 이처럼 유명해질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오늘 무언가를 그리는 것을 시도해 보라는 (C)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4 ㉠ 동사 mean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므로 mea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5 우리의 벽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서 민화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므로 ⑤ far away(먼, 멀리 있는)를 close by(가까이에)로 바꿔 써야 한다.
- 16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언급에서 '창의성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맥락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② '용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시간 ③ 전통 ④ 교육 ⑤ 격려
- 17 ㉠ 「be about to + 동사원형(막 ~하려고 하다)」 구문이므로 see로 고쳐 써야 한다.
- 18 주어진 문장은 '그것들은 수백 개의 문화 유적지, 사람들 그리고 옛 생활 방식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뜻으로 They는 사진들을 가리키므로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서술형으로 끝내기

p.110~112

- 01 (1) T (2) F (3) F (4) T
 02 ㉠ subject → subjects ㉡ painted → was painted ㉢ are → is
 03 Each strand seems to express power and strength.
 04 ㉠ which ㉡ that
 05 ㉢ → longevity
 06 Not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did paintings begin to decorate the homes of common people.
 07 (B) common (C) misfortune
 08 ㉠ → applied
 09 (A) looking (B) be tempted (C) called
 10 They did not feel that an object had to be drawn from only one perspective.
- 01 (2) Mark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언급했다.
 (3) Mark는 자신의 나라가 한국보다 대부분 와이파이기가 훨씬 더 느리다고 언급했다.
- 02 ㉠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이므로 subject를 복수 명사 subjects로 고쳐 써야 한다.
 ㉡ 맹렬한 호랑이는 그려지는 것이므로 painted를 수동태 was painted로 고쳐 써야 한다.
 ㉢ There에 의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으로 주어가 단수이므로 동사 are를 is로 고쳐 써야 한다.
- 03 「each +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하며, 「seem to + 동사원형(~인 것처럼 보인다)」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04 ㉠ 앞 문장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the fact의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 05 장수하는 풍요로운 삶을 희망하면서 민화의 화가들이 그들의 그림에 10개의 장수의 상징을 사용했다는 맥락이므로 ㉢ literacy(글을 읽고 쓰는 능력)를 longevity(장수)로 바꿔 써야 한다.
- 06 부정어구(not until)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것에 유의한다.
- 07 (B) '특별한 지위나 계급이 없는 보통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common(보통의)이다.
 (C) '불운 또는 불행한 사건'에 해당하는 단어는 misfortune(불운)이다.
- 08 민화 화가들이 그들의 그림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법을 적용했다는 맥락이므로 ㉠ supplied(supply: 공급하다)를 applied(apply: 적용하다)로 바꿔 써야 한다.
- 09 (A) Anyone을 수식하는 분사로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looking으로 써야 한다.
 (B) 호랑이를 쓰다듬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는 맥락이므로 be tempted(be tempted to + 동사원형: ~하고 싶다)로 써야 한다.
 (C) 20세기에 입체파라고 불린 것이므로 수동 관계의 과거분사 called로 써야 한다.
- 10 feel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과 수동태(be drawn)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시 쓰기

p.113~117

- 01 Have you ever seen the painting above?
 02 The name of this famous painting is *sjpjangsaengdo*.
 03 This kind of painting is called *minhwa* in Korean, which means a folk painting.
 04 In the old days, it was practically impossible for most common people to buy paintings.
 05 Aside from the fact that they were too expensive, famous artists often painted exclusively for the king and the government.
 06 Not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did paintings begin to decorate the homes of common people.
 07 At that time, anonymous artists started to draw and sell their works to the public.
 08 *Minhwa* often reflected the thoughts, dreams and wishes of common people.
 09 They believed that *minhwa* would bring them good fortune.
 10 In the hope of having a long prosperous life, *minhwa* artists used ten symbols of longevity in their paintings: the sun, clouds, water, mountains, rocks, pine trees, herbs of eternal youth, turtles, birds and deer.
 11 They also drew scary animals such as dragons, tigers, or even dogs with four eyes to protect people from misfortune.
 12 *Minhwa* artists also enjoyed painting beautiful flowers with a male and a female bird, because they represented a happy marriage or peaceful home.
 13 The tiger w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painted subjects in ancient Korean paintings.
 14 Korea was once known as the land of the tigers.
 15 Two or three hundred years ago, it was easy to catch sight of tigers on almost any mountain.
 16 Tigers often came down to towns and villages to eat livestock and even harm people.

- 17 Tigers were both feared and respected at the same time by ancient Koreans.
- 18 Take a look at the painting to the right.
- 19 This fierce tiger was painted by Kim Hongdo, a famous Korean artist.
- 20 The tiger's eyes are set on you.
- 21 It looks as if it will leap out of the painting at any moment.
- 22 There is not a single strand of fur out of place.
- 23 Each strand seems to express power and strength.
- 24 Even its tail is pointed upward, expressing authority.
- 25 The way tigers were painted by *minhwa* artists, however, was quite different.
- 26 Look at the tiger on this page by an anonymous artist in the late Joseon period.
- 27 In contrast to the tiger painted by Kim Hongdo, this one does not look scary at all.
- 28 There is something comical about it.
- 29 It has round teeth and its two front legs are gathered together in a shy manner.
- 30 Its cute tail is between the front legs.
- 31 It looks like a friendly cat.
- 32 Even the bird above the tiger seems to want to play with it.
- 33 Anyone looking at this creature could almost be tempted to pet it.
- 34 This *minhwa* has another interesting feature.
- 35 Have you noticed anything strange about the tiger's body?
- 36 The face is drawn from the front, the front legs from the side, and the other legs from the back.

- 37 In this way, *minhwa* artists applied free and creative techniques to their paintings.
- 38 They did not feel that an object had to be drawn from only one perspective.
- 39 A similar technique was also used later by Picasso in a movement called Cubism in the 20th century.
- 40 Do you think Picasso got his ideas from *minhwa* artists?
- 41 Today, it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to find *minhwa* on the walls of Korean homes.
- 42 Does this signal the end of *minhwa* in modern Korea?
- 43 Certainly not!
- 44 Just because it is disappearing from our walls, it does not mean that *minhwa* has taken its last breath.
- 45 If you take some time to carefully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you will see that *minhwa* is very close by.
- 46 For example, *minhwa* lives on in images that decorate the walls of old neighborhoods, school supplies, mobile phone cases, and clothing.
- 47 *Minhwa* of yesterday is being reborn to represent the Korean culture of today.
- 48 None of the original *minhwa* artists could have imagined the popularity of their paintings, but they became very famous later on.
- 49 Who knows?
- 50 If you draw something today, it may become *minhwa* someday.
- 51 Don't be afraid to give it a try.
- 52 Keep in mind the words of the famous artist, Henri Matisse: "Creativity takes courage."

최종점검 모의고사

Lesson 05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20~127

01 ③	02 ④	03 ⑤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⑤	12 ②
13 ②	14 ④	15 ③	16 ③	17 ①	18 ③
19 ⑤	20 ④	21 ④	22 ②	23 ③	24 ②
25 ⑤					

- 01 (A) 주어 they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excited가 적절하다.
(B) 주어 the class 뒤에 like ~ blocks까지의 전치사구가 있고, 동사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동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형 동사 leaped가 적절하다.
(C) 부사 inside가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구문으로 주어가 white rice and nothing else로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 was가 적절하다.
- 02 주어인 문장은 '이 선생님이 큰 카트를 가지고 교실로 들어오실 때 반 학생들은 환호했다'는 내용으로, 점심시간 종이 울렸다는 문장 뒤와 비빔밥 먹을 사람은 줄을 서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문장 앞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3 뒤에서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반 학생들이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선생님이 큰 카트를 가지고 교실로 들어오실 때 환호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학생들의 눈에서 집중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⑤ '학생들은 점심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① 아주 적은 집중력만이 학생들의 태도에서 발견되었다
② 학생들은 밖에서 놀기 위해 수업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다
③ 피곤함으로 인해 학생들 눈에서 졸음이 목격되었다
④ 학생들은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에 지루함을 느꼈다
- 04 초반부의 It wasn't because they were ~ an amazing cook에서 교실이 박수로 넘쳐났던 이유가 반 학생들이 전학생을 환영하는 것에 들떴기 때문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② '반 학생들을 들뜨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전학생을 환영하는 행사였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이 선생님은 이번 주 금요일에 전학생을 환영할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셨다.
③ 학생들은 그들 모두를 위해 이 선생님이 비빔밥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결정에 몹시 기뻐했다.
④ 비빔밥을 위한 날에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학생들은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⑤ 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줄을 서게 한 후, 큰 그릇의 덮개를 치우셨다.
- 05 이 선생님은 전학생을 환영하기 위해 특별한 점심인 비빔밥을 먹을 계획을 세웠고 학생들은 그것을 간절히 (a)고대했으나, 비빔밥을 먹기로 한 날에, 이 선생님이 가져오신 그릇에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어떤 추가적인 (b)재료도 없는 하얀 밥뿐이었다.
① 기다렸다 조리도구
② 준비했다 조리도구
③ 기대했다 영양소
⑤ 추천했다 재료
- 06 앞에 이 선생님의 반도 굉장히 다문화적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빈칸에는 이 선생님 반의 다문화적인 학생들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인 ④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 출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가진 (여러 명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외국에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던
②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 가르치는 것에 매력을 느꼈던
③ 주된 관심사가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해외로 가는 것이
⑤ (이들을 위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 몇몇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 07 ⑤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이므로 students로 고쳐 써야 한다.
① 앞에 「주어 + 동사 ~」 문장이 있고, 접속사가 없으므로, 밑줄 부분은 동사가 아닌 분사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주어인 Mr. Lee가 '키 큰 소년에 의해 따라 들어와졌다'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과거분사 followed는 적절하다.
② 준사역동사 help는 「help + 목적어 + 목적격 보어(동사원형[to부정사])」 구조로 목적격 보어 자리의 동사원형 feel은 적절하다.
③ 주어 This는 Perm이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is 뒤에 선행사 the place가 생략된 채 관계부사만 제시되어 있는 구조이다. 선행사 the place는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략이 가능하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만 쓰인 것은 적절하다.
④ 동사 answered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로, 부사 confidently는 적절하다.
- 08 이 선생님이 교실에서 새로 전학 온 학생인 Mikhail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뒤에는, Mikhail의 출신국에 대해 묻고 답하며 소개하는 내용의 (B)가 오고, Mikhail이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것과 편하게 느끼도록 도와주자는 선생님의 말과 Mikhail이 앓을 빈자리가 있는지 묻는 내용의 (A)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준호 옆에 빈자리가 있다고 지호가 소리치는 내용의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09 앞서 Mikhail이 앓을 빈자리가 있는지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빈자리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이어 빈칸에는 빈자리가 있는데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전학생을 도와줘서 귀찮아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집중하는 것
② 전학생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
④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내해야 하는 것
⑤ 전학생과 친구가 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 10 러시아에서 온 전학생을 소개하고 앓을 자리를 찾아주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전학생: 그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가 적절하다.
① 학생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② 전학생과 친구가 되고 싶은가? 그의 짝이 되어라
④ 전학생이 너의 교실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주어라
⑤ 다른 나라로부터의 문화를 수용하는 바른 태도
- 11 (A) 뒤에 인형들이 화려해 보인다고 했으므로, 그것들이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도록 different(다른)이 적절하다. (same: 같은)
(B) 그것들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므로 particular(특별한)가 적절하다. (ordinary: 평범한)
(C) 앞서 인형을 열면 더 작은 인형들이 안에서 나온다고 했으므로, 정말 흥미롭다고 응답하는 내용이 되도록 intriguing(아주 흥미로운)이 적절하다. (uninteresting: 흥미롭지 않은)
- 12 초반부에 소녀가 한 말인 They are wooden dolls from Russia.에서 마트로시카 인형이 나무로 만든 러시아 인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② '마트로시카 인형이 만들어진 재료는 나무이다'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소년은 마트로시카 인형에 대해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③ 마트로시카 인형은 곡선으로 된 모양을 지니지 않았다.
④ 소녀는 큰 인형 안에 있는 더 작은 인형들이 갖게 되어 기뻐한다.
⑤ 소년은 소녀로부터 마트로시카 인형을 사고 싶어 한다.
- 13 (A) 「taste + 형용사」 구문으로 형용사 great가 적절하다.
(B) '결국 ~하게 되다'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to부정사 to create가 적절하다.
(C) 「each + 단수 명사 + 단수 동사」 구문으로 단수형 동사 has가 적절하다.
- 14 밥만 가져오셔서 새로운 종류의 비빔밥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께 비빔밥을 맛있게 해 주는 건 다른 재료들이라며 태민이가 소리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이 서로 다른 재료들이 섞여서 훌륭한 맛을 내는 비빔밥처럼, 서로 다른 부분들이 섞이면 각각의 합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체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내용으로, 비빔밥의 주재료와 채식주의자들에 대해 언급한 ④ '비빔밥의 주재료는 채소들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라고 그가 덧붙였다.'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 15 앞에 각각의 재료들은 고유의 특별한 맛과 색, 그리고 식감을 갖고 있지만, 섞이면 훌륭한 맛을 낸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각각의 합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체'는
 ③ '모든 부분들의 특징들이 조화를 이룬 후 향상된 것'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① 좋은 품질의 부분들만 섞음으로써 만들어진 것
 ② 특징이 변화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④ 본래 특징이 사라진 부분들로 구성된 것
 ⑤ 같은 기능을 가진 부분들만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것
- 16 주어진 문장은 '그렇게 하면, 그건 화가 났다는 뜻이야'라는 내용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특정 행동인 that이 가리키는 put your hands in your pockets while talking to others가 언급되고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묻는 소녀의 질문 뒤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7 특정 나라, 문화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기사를 읽고, 그 예로 멕시코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나누는 대화로, 빈칸에는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들어가야 한다. 뒤에 의사소통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 문화 간 차이를 배워야 한다는 girl의 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빈칸에는 ① '(문화를 배운다는 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이상이야'가 적절하다.
 ② 나로 하여금 내 문화에 대해 혼란스럽게 해
 ③ 내가 다른 문화에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해
 ④ 만약 멕시코로 여행갈 예정이라면 내가 해야 할 우선 사항이야
 ⑤ 나라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막을 지도 몰라
- 18 다른 문화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대화로, 특정 문화에서의 특정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의사소통 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문화 차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요지로는 ③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은 의사소통 시 오해를 줄일 수 있다.'가 적절하다.
 ① 다른 문화를 배우고 싶다면 다양한 언어를 배워라.
 ② 어떤 나라에서는 손을 사용해서 몸짓을 만들면 안 된다.
 ④ 문화에 대한 기사를 읽는 것은 세계에 대한 보다 넓은 견해를 갖게 해 준다.
 ⑤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 19 준호가 '우리 교실이 마치 비빔밥 한 그릇 같아요'라고 말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는, 준호의 교실과 비빔밥 비유에 대해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준호의 말에 동의한 선생님이 비빔밥의 모든 재료가 들어 있는 다른 카트를 가지고 교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내용의 (C)가 오고, 모두들 비빔밥을 비비는 내용이 제시되는 (B)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비빔밥을 먹으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학생들이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즐기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A)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20 ④ 교대로 ~하다'라는 의미의 「take turns + 동명사」 구문이므로 mix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먹으면서'라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 자리로 현재분사 eating은 적절하다.
 ② '둘이 서로서로'를 나타낼 때는 each other, '셋 이상이 서로서로'를 나타낼 때는 one another을 사용한다. 문맥상 반 학생들과 Mikhail이 서로서로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셋 이상을 지칭해야 하므로 one another은 적절하다.
 ③ 주어 All this talk가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 is는 적절하다.
 ⑤ mention은 타동사로 뒤에 about과 같은 전치사를 쓸 수 없으므로, 동사만 제시된 mentioned는 적절하다.
- 21 Mikhail had a chance to mix his first bibimbap에서 Mikhail은 자신의 첫 번째 비빔밥을 섞을 기회를 가졌다(비빔밥을 섞는 경험이 처음이었다)내용이 있으므로, ④ 'Mikhail은 비빔밥을 섞은 첫 번째 학생이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학생들은 비빔밥을 먹으면서 서로서로 가까워졌다.
 ② 그들의 다른 점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③ 이 선생님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릇에 재료들을 넣고 그들 스스로 섞게 했다.
 ⑤ 교실 밖에 놓여 있던 또 다른 카트에는 비빔밥을 위한 재료들이 있었다.
- 22 학생들은 비빔밥의 서로 다른 재료들을 (b)섞는 활동을 통해 비빔밥 한 그릇과 그들의 교실 사이의 유사점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들의 다른 점들을 (a)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었다. (analogy: 유사점 / ingredient: 재료)

- ① 강조하는 섞는 것
 ③ 드러내는 합치는 것
 ④ 감지하는 준비하는 것
 ⑤ 진가를 인식하는 준비하는 것

- 23 앞서 준호는 다른 학생들처럼 Mikhail에게 관심이 없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준호의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였다는 내용이 문맥상 자연스러우므로 ③ hostility(적대감)을 indifference(무관심) 같은 말로 바꿔 써야 한다.
- 24 무관심이 무지함과 합쳐질 때 빈칸에 해당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내용으로, 빈칸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생겨난 폐해가 들어가야 한다. 문맥상 편견이 생겨나게 된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② '편견'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불균형 ③ 통합 ④ 경쟁 ⑤ 양립 가능성
- 25 준호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무관심하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무관심과 무지함이 합쳐져서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⑥ '학교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무관심으로 생겨난 증대되는 문제'가 적절하다.
 ① 학급 친구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잠재적 문제
 ② 다른 문화에 대한 증대되는 호기심과 그것을 충족하는 방법
 ③ 다양한 문화의 모든 학생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④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요인들

Lesson 06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28~135

01 ②	02 ①	03 ③	04 ⑤	05 ③	06 ④
07 ④	08 ③	09 ③	10 ②	11 ④	12 ③
13 ②	14 ③	15 ②	16 ①	17 ③	18 ④
19 ④	20 ②	21 ③	22 ③	23 ⑤	24 ④
25 ④					

- 01 주어진 문장은 '하지만 호랑이가 민화 화가에 의해 그려지는 방식은 꽤 달랐다'는 내용으로,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민화 화가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는 문장 앞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2 (A) 앞에 본동사 is pointed가 있으므로, 분사구문의 분사 자리이다. '표현하면 서'라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현재분사 expressing이 적절하다.
 (B) 앞의 부정대명사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로, comical(웃기는, 재미있는)이 적절하다.
 (C) to 부정사구 to play with의 목적어 자리로, to play의 의미상의 주어인 the bird와 목적어인 the tiger가 다른 존재이므로, 재귀대명사가 아닌 대명사 it이 적절하다.
- 03 앞서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와는 대조적으로'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강하고 권위있게, 실사처럼 표현된 김홍도의 호랑이와 반대되는 호랑이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빈칸 뒤의 민화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의 모습이 재미있고, 친근하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빈칸에는 ③ '이것은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이것은 전혀 유명하지 않았다
 ② 이 호랑이는 실제 동물처럼 보인다
 ④ 이 호랑이는 보통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그려졌다
 ⑤ 이것은 모든 다른 동물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동물로 그려졌다 (portray: 그리다, 묘사하다)
- 04 후반부의 its two front legs are gathered together in a shy manner와 It looks like a friendly cat.에서 민화 속 호랑이가 앞 다리를 수줍게 모으고 있고, 친근한 고양이처럼 보인다고 했으므로, ⑥ '민화 속 호랑이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줍음을 느끼게 한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김홍도는 당신에게 고정된 것 같은 눈을 가진 호랑이를 그렸다.
 ② 김홍도의 호랑이에서의 모든 털 가닥들은 제 자리에 있다.
 ③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는 힘 있고, 강하고, 권위적으로 보인다.
 ④ 민화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는 위쪽으로 향한 꼬리를 지니지 않았다.
- 05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는 매우 (a)강력하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일 것 같아 보이는 반면, 민화 화가들에 의한 호랑이는 실제 호랑이와는 달리, 우스꽝스럽고 (b)우호적으로 보인다. (amiable: 우호적인, 정감 있는)
- ① 온화한 관대한
 ② 실제의 진지한
 ④ 활기찬 아주 약한
 ⑤ 공격적인 방어적인
- 06 호랑이들은 종종 도시와 마을로 내려와 가족들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다는 내용이 문맥상 자연스러우므로 ④ benefit(혜택을 주다)을 harm(해를 끼치다) 같은 말로 바꿔 써야 한다.
- 07 호랑이가 고대 한국 그림에서 자주 그려진 대상들 중 하나라고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이유로, 한국은 한때 ‘호랑이의 나라’라고 알려질 만큼, 이삼백년 전에는 호랑이를 쉽게 볼 수 있었고, 고대 한국인들에게 호랑이가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 ④ ‘호랑이들: 고대 한국 그림에 사용된 흔한 대상’이 적절하다.
- ① 고대 한국 그림에서의 호랑이의 의미
 ②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호랑이의 이미지에 집중하라
 ③ 호랑이 외의 어떤 동물들이 한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가?
 ⑤ 호랑이와 고대 한국인들 사이의 애증의 관계
- 08 민화는 종종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영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민화에 반영된 것이 들어가야 한다. 뒤에 민화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내용과, 민화 화가들이 장수, 불행을 막아 주는 것, 행복한 결혼을 상징하는 대상들을 그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빈칸에는 ③ ‘보통 사람들의 생각, 꿈, 그리고 소원’이 가장 적절하다.
- ① 자연에 살아 있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
 ② 사람들이 부유하고 풍족해지고자 하는 소망
 ④ 민화 화가들이 이루고 싶어 했던 꿈들
 ⑤ 독특한 동물들을 수단으로 하여 장수의 비결
- 09 민화에서 어떤 소재들이 그림으로 그려졌고, 그 소재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고대에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대해 언급한 ③ ‘특히, 약초와 거북이는 고대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믿어졌다’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incurable: 불치의, 치유할 수 없는)
- 10 민화에서 주로 그려졌던 소재들과 그림 속 그 소재들을 통해 사람들이 희망했던 내용들에 대해 제시한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② ‘행운의 상징들로서의 민화 속 다양한 대상들’이 적절하다.
- ① 민화가 사람들을 장수하게 해 준다는 믿음
 ③ 민화에 대해 잘못 이끌어낸 정보로 인한 문제들
 ④ 사람들을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하는 결과를 이끈 민화의 공헌도
 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수호자로서의 민화의 중요한 역할
- 11 ‘십장생도’라는 유명한 그림을 보라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이 그림이 민화라며 민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옛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그림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내용의 (C)가 오고, 왜 보통 사람들이 그림 사는 것이 불가능했는지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인 (A)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민화가 그려져서 보통 사람들도 그림을 접하게 된 시기를 제시하는 내용의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12 ③ not until A B 구문으로, 부정어구인 not until이 이끄는 전치사구가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데 일반동사 began이 동사로 쓰였으므로 「did + 주어 + 동사원형」의 did paintings begi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앞의 the fact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절 접속사 자리로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적절하다.
 ② 동사 painted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로 ‘독점적으로’라는 의미의 부사 exclusively(오직 ~만; 독점적으로)는 적절하다.
 ④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앞의 to draw와 병렬로 이어진 구조로 sell 앞의 to는 반복되어 생략된 형태이다.

- ⑤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 목적격」의 형태로 전치사 for는 적절하다.
- 13 십장생도와 같은 한국의 민화는, 왕과 정부가 아닌 (a)보통 사람들을 위한 서민의 그림으로, 이것의 기원은 (b)(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 대중에게 팔기 시작했던 조선 시대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 ① 유명한 이름 없는
 ③ 보통의 주목할 만한
 ④ 똑똑한 알려지지 않은
 ⑤ 억압받는 재능있는
- 14 주어진 문장은 ‘그 무용수들이 꽃 대형을 만들고 있어’라는 내용으로, 무언가를 보면서 무용수들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진을 보며 이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든다는 소녀의 말과 부채춤에서 무용수들이 만드는 또 다른 대형들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주는 소녀의 말 사이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5 초반에 소녀는 I wan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fan dance.라고 말하며, 부채춤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고 있고, 후반에는 I can't wait to learn buchaechum!이라고 말하며 기대에 차서 부채춤을 배우고 싶어 하는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소녀의 심경 변화로는 ② ‘궁금해하는 → 열망하는’이 적절하다.
- ① 질투하는 → 실망한
 ③ 불만족스러운 → 놀란
 ④ 화가 난 → 고마워하는
 ⑤ 무관심한 → 열렬한
- 16 중반부의 They can make other beautiful images like birds and butterflies.에서 무용수들이 부채춤에서 새나 나비와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① ‘소녀에 따르면, 부채춤 무용수들은 새 대형을 만들 수 있다.’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② 소녀는 부채춤의 공연자들이 여자와 남자 무용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 여자 무용수들에 의해서 공연됨)
 ③ 소녀는 Miranda가 한국 문화로부터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 모르고 있었음)
 ④ 지역 문화 센터는 소녀의 여동생이 부채춤을 배운 곳이었다. (→ 소녀의 여동생은 학교에서 부채춤을 배웠음)
 ⑤ Miranda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춤을 직접 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 부채춤을 배우고 싶어 함)
- 17 (A) 민화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며, 민화 속 호랑이의 몸에 대해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는지를 묻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strange(이상한)가 적절하다. (normal: 정상적인, 보통의, 평범한)
- (B) 앞에서 호랑이의 몸 각 부분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그려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민화 화가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법을 그림에 적용했다는 내용이 되도록 creative(창의적인)가 적절하다. (conventional: 관습적인, 전통적인)
- (C) 뒤에 피카소가 민화 화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있으므로, 민화에 적용된 기법이 입체파 운동의 피카소가 사용한 기법과 같다는 내용이 되도록 similar(비슷한)가 적절하다. (opposed: 반대되는)
- 18 민화 화가들은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빈칸에는 민화 화가들이 취하지 않은 방식이 들어가야 한다. 앞에서 민화 화가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호랑이 몸을 그렸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④ ‘사물이 오직 한 가지 시각[관점]으로 그려져야 한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는 경우, 빈칸에는 주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 ① 사물이 추상적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
 ② 그들의 기법은 입체파에서 기원했다 (derived: 유래된 / Cubism: 입체파)
 ③ 그림 속 사실적 호랑이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⑤ 그들은 다양한 시각으로부터 물체를 그려야 했다
- 19 민화에 적용된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법이 20세기 입체파의 피카소에 의해 사용되었던 기법과 같았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④ ‘당신은 민화에서 입체파로부터의 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가 적절하다.

- ① 화가들이 20세기에 입체파를 따랐던 이유
 - ② 민화 속 호랑이의 몸, 얼마나 멋진가!
 - ③ 창의적인 기법을 당신의 그림에 적용하라
 - ⑤ 입체파의 피카소와 민화의 화가들 중 누가 먼저인가?
- 20 오늘날 한국 가정에서 민화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 한국에서의 민화의 종말을 암시하는지를 묻는 주어진 글 뒤에는 질문에 대한 답인 '그렇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주의 깊게 주변의 세상을 본다면 민화가 매우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내용의 (B)가 오고, 이에 대한 예시로 벽, 학용품, 휴대 전화 케이스, 의류 등을 장식하는 이미지 속에서 민화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옛 민화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이 훗날 인기를 얻게 되고 유명하게 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독자에게 나중에 그런 민화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림을 그려보라고 독려하는 내용의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21 (a) 주격 관계대명사 뒤의 동사 자리로, 주어에 해당하는 선행사가 images이다. 따라서 복수 주어와 수를 일치시킨 decorate가 적절하다.
 (b) 동사 mean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끌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c) 과거의 민화 화가들에 대해 추측하는 내용이므로, 과거에 대한 추측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의 'could have + 과거분사' 구문으로 have imagined가 적절하다.
- 22 빈칸에는 예전의 민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앞서 민화가 여러 물건이나 주변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예전의 민화가 아직도 존재하거나 새로이 탄생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도록, ③ '오늘날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여 다시 태어나고 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현대 한국의 가옥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
 - ② 그것의 높은 가치 때문에 현대 화가들에 의해 모방된다
 - ④ 현대 생활과 용법에 부합하도록 다시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
 - ⑤ 고대 한국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그려지는 방법이 학습되어야 한다
- 23 앞서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언가를 그려 보라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창의성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⑤ '당신이 새롭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시도할 때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① 사람들이 민화를 복구하고자 의도한다면 창의성과 용기가 필요로 된다.
 - ② 당신이 위험한 무언가를 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 ③ 창의적인 것이 인기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옛것들을 무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 ④ 일단 무언가를 그리면 당신은 나중에 창의적이고 용감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 24 초반부에 소녀가 What do you like most about Korea?라며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Mark는 I'm impressed with the wi-fi connection everywhere I go.라며 와이파이 연결이 인상적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④ '한국에 있는 동안 Mark를 놀라게 한 것은 와이파이 연결이다.'가 대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① Mark는 자신의 나라에 많은 와이파이기가 가능한 구역이 많다고 말한다. (→ 와이피이 가능 구역이 많지 않다고 함)
 - ② Mark의 나라 일부 지역에서만 와이파이기가 유용한 것은 아니다. (→ 알 수 없음)
 - ③ Mark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소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 전적으로 동의함)
 - ⑤ 소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Mark의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주장한다. (→ 소녀가 아니라 소년(Mark)임)
- 25 한국을 홍보하기에 가장 좋은 품목이 어떤 것인지 묻고, 그에 대해 한복이라며 그 이유를 나열하는 글로, 목적적으로는 ④ '한국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한복을 추천하기 위해'가 적절하다.
- ① 다양한 한복의 기능에 대해 칭찬하기 위해
 - ② 사람들로 하여금 한복을 구입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 ③ 외국인들이 한복의 실용성을 알게 하기 위해
 - ⑤ 한복이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최상인 이유에 대해 묻기 위해

- 01 (1) ㉠ → uncomfortable (2) ㉡ → was (3) ㉢ → itself
- 02 (a) where Perm was (b) what language Mikhail spoke
- 03 (A) indifferent toward other cultures
 (B) prejudice (C) ignorance
- 04 ㉠ (c)oncentration ㉢ (u)ncovered
- 05 the class, like Olympic runners coming out of the starting blocks, simultaneously leaped out of their seats
- 06 (a) excited, delighted (b) perplexed, disappointed
- 07 On the cart was a big bowl with a silver cover.
- 08 (being) followed by a tall boy
- 09 ㉠ Does anyone know where this is?
 ㉢ A few students laughed.
 ㉡ to be bothered with helping the new student
- 10 ① confidently ② relaxed ③ stare
- 11 (B) Sumi was one of the smartest students in the class.
 (C) There were a few empty seats, but no one said anything.
- 12 It wasn't because they were excited about welcoming the new student, but because they knew that Ms. Lee was an amazing cook.
- 13 have a special welcome lunch for a new student
- 14 (1) ㉠, reveal → hide / conceal
 (2) ㉡, dispersed → gathered / assembled
 (3) ㉢, deny → embrace / accept
- 15 our classroom is just like a bowl of *bibimbap*
- 16 (B) I hadn't thought about that until you mentioned it
 (C) took turns mixing them up with big spoons
- 17 you shouldn't put your hands in your pockets while talking to others
- 18 (1) T (2) T (3) F (4) F
- 19 (1) ㉠ → A handshake is a way in which[that] people greet each other / A handshake is people greet each other
 (2) ㉡ → to confer congratulations, and to comfort someone
 (3) ㉢ → The wai consists of a slight bow
- 20 (A) 다른 재료가 없이 그릇 안에 있는 밥(비빔밥 재료로 밥만 있는 것)
 (C) 각각의 비빔밥 재료
- 21 It's the other ingredients that make *bibimbap* taste so great!
- 22 they create a whole which is much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 23 (a) (d)istinctive (b) (p)erfect (c) (h)armony
- 24 If Mikhail had been the first foreign student at this school, he might have drawn more attention
- 25 multicultural

- 01 ㉢ 명사 smiles를 수식하는 자리로 부사 uncomfortably(불편하게)를 형용사 uncomfortable(불편한)으로 고쳐 써야 한다.
 ㉡ 주어 this difference가 단수이므로 복수 동사 were를 단수 동사 was로 고쳐 써야 한다. toward other cultures는 전치사구로 실질 주어가 아님에 주의한다.
 ㉠ in oneself는 '그 자체로'라는 의미의 재귀대명사의 관용표현으로, 재귀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의 수와 일치시켜 써야 한다. 재귀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being indifferent로 단수에 해당하므로 themselves를 itself로 고쳐 써야 한다.
 ㉢ '다른 나머지의'라는 뜻의 (부정) 형용사 the other은 적절히 쓰였다. '또 다른 하나의'란 뜻의 another와 구별해야 함에 주의한다.

- ㉔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구의 동명사 자리로 Being은 적절히 쓰였다.
- 02 전치사 뒤의 명사절인 의문사절(간접의문문)의 어순 「의문사 + 주어 + 동사」어순에 따라 문장을 완성한다.
- 03 준호를 포함해서 학교의 학생들은 (A)다른 문화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C)무지함과 합쳐졌을 때 (B)편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 04 ㉔ concentration(집중력) : 자신의 모든 관심을 무언가에 쏟는 과정
 ㉕ uncover(덮개를 벗기다) : 뚜껑 또는 무언가를 숨기거나 보호하거나 덮기 위해 올려놓은 것을 치우다
- 05 「like + 명사구」 구문과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를 이용한다.
- 06 밑줄 친 (a), (b) 문장을 읽고, 여러분은 반 학생들의 기분이 어떨다고 생각하나요?
 (a) The class cheered에서 반 학생들이 환호했다고 했으므로 신나고(excited) 기분 좋은(delighted)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
 (b) Inside was white rice and nothing els에서 하얀 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므로, 비빔밥을 먹을 기대에 부풀어 있던 학생들의 당혹스럽고(perplexed) 실망스러운(disappointed) 감정을 추론할 수 있다.
 (relieved: 안도하는 / ashamed: 부끄러운 / touched: 감동 받은 / confident: 자신감 있는 / depressed: 우울한 / horrified: 겁에 질린 / irritated: 짜증난 / regretful: 후회하는)
- 07 부사구인 on the cart를 문두에 두면 뒤의 주어와 동사는 도치되므로 「부사구(on the cart) + 동사 + 주어」의 어순으로 문장을 바꿔 쓸 수 있다.
- 08 「접속사 + 주어 + 동사 ~」 형태의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려면, 접속사 and를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인 Ms. Lee와 동일한 주어 she를 생략한다. 동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므로 동사 was를 현재분사의 형태인 being으로 고쳐 쓰는데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 09 ㉔ know의 명사절인 의문사절은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where is this를 where this is로 고쳐 써야 한다. / 여기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㉕ students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앞에 수량 형용사로 a few가 와야 한다.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량 형용사이므로 a little을 a few로 고쳐 써야 한다. / 몇 명의 학생들이 웃었다.
 ㉖ to부정사 to bother의 주어가 they로 그들이 '귀찮아 지는 것'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to부정사의 수동태인 「to be + 과거분사」 형태로 써야 한다. 따라서 to bother을 to be bothered로 고쳐 써야 한다. 전치사 with 뒤에 동명사 helping이 쓰인 것은 적절하다. / 전학생을 도와주는 일이 귀찮아 지는 것
- 10 ① certainly는 '확실하게'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의 대체 가능한 단어는 confidently(자신 있게)이다.
 ② fell at home은 '편안함을 느끼다'라는 의미로 at home과 같은 의미의 대체 가능한 단어는 relaxed(편안한)이다.
 ③ glare은 '노려봄'이란 의미로 같은 의미의 대체 가능한 단어는 stare(노려봄)이다.
 (grin: 활짝 웃음 / glance: 힐끗 봄 / doubtfully: 의심스럽게 / specifically: 상세하게 / inconvenient: 불편한 / fascinated: 매료된)
- 11 (B)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가장 ~한 것들 중 하나' 구문과 그 뒤에 단수 동사를 사용한다.
 (C) 「there be + 주어 ~」 구문에서 주어와 동사 도치와 수 일치와 부정어가 있을 때 anything을 사용한다.
- 12 「not because ~ but because ...」 '~때문이 아니라 ...때문이다' 구문과 know의 목적어로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을 사용한다.
- 13 '왜 이 선생님은 이번 주 금요일에 학생들을 위해 비빔밥을 만들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초반부의 Since we have a new student, ~ this Friday에 '전학생이 왔으니 특별한 환영 점심식사를 하도록 합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 14 ㉔ '이 선생님은 웃음을 감추려 애썼다'라는 내용으로 reveal(드러내다)를 hide / conceal(감추다)로 바꿔 써야 한다.
 ㉕ '학생들이 동그랗게 모였다'라는 내용으로 dispersed(흩어졌다)를 gathered / assembled(모였다)로 바꿔 써야 한다.

- ㉔ '그들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즐기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deny(거부하다)를 embrace / accept(받아들이다)로 바꿔 써야 한다.
- 15 '흥미로운 생각'은 준호가 교실을 비빔밥에 비유해 한 말인 Our classroom is just like a bowl of bibimbap을 의미한다.
- 16 (B) 「not A until B」 'B할 때까지는 A하기 못하다(B하고 나서야 A하다' 구문을 사용하여 until 앞의 주절의 시제는 과거완료 시제로, until이 이끄는 절은 과거 시제로 문장을 완성한다.
 (C) 「take turns + 동명사」 '교대로 ~하다' 구문과 「동사 + 대명사 + 부사」 구문에서 대명사의 위치를 주의해서 사용한다.
- 17 금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n't와 「while + 분사구문」 '~하면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18 (1) 신문에 재미있는 것이 있냐는 Girl의 질문에 Jun은 There's an article about the Do's and Don'ts of different cultures.이라고 대답했으므로, 'Jun은 다른 문화들에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는 대화 내용과 일치한다.
 (2) Bob이 말한 If you do that, it can mean you're angry. In this way, they are likely to understand you wrong.에서 특정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Jun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할 수 있는 멕시코에서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대화 내용과 일치한다.
 (3) Girl이 말한 If I ever visit Mexico, I will be more careful.에서 멕시코에 가면 특정 행동을 조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소녀는 멕시코에 가면 그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는 대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 대화의 마지막에서 Girl이 말한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is more than just learning languages.에서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녀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데 필요로 되는 것이다.'는 대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9 ㉔ 선행사 a way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which 뒤에 완전한 문장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in이 추가로 쓰여야 한다. 또는 관계부사 역할의 that이 which 대신 쓰이거나, a way가 생략되어 쓰일 수도 있다.
 ㉕ 앞의 a social act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 용법의 to부정사구가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comforting을 to부정사 to comfort로 고쳐 써야 한다.
 ㉖ consist of는 '~로 이루어져 있다'란 의미로 수동태 불가 동사구이다. 따라서 수동태 형태인 is consisted를 능동태인 consists로 고쳐 써야 한다.
 ㉗ 주어인 it(a handshake)가 '사용되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동사의 수동태 구조 「be동사 + 과거분사」인 is used는 적절히 쓰였다.
 ㉘ 「with + 명사 + 분사」 '~한 채로」는 분사구문으로 명사 the palms가 '밀착된 채'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과거분사 pressed는 적절히 쓰였다.
- 20 (A)의 '저것'은 학생들이 보고 당황해 했던 the inside of the bowl which has only rice로 미루어 '다른 재료가 없이 그릇 안에 있는 밥'을,
 (C)의 '그것'은 앞의 each ingredient(각 재료를 가리킨다).
- 21 「It is + 강조하는 어구 + that ~」 강조 구문에 일치하도록, 강조하고자 하는 어구인 the other ingredients를 it is 뒤에 쓰고, that 뒤에 문장의 나머지를 써 준다. 조건으로 제시된 단어 수를 맞추기 위해 it is를 줄여 it's로 써 준다는 것에 주의한다.
- 22 주격 관계대명사 which와 그 뒤의 문장에서 비교급 강조 구문을 사용한다.
- 23 '자신만의 (a)독특한 맛을 지닌 비빔밥의 모든 재료들이 잘 섞여서 비빔밥을 (b)완벽하고 훌륭한 맛이 나게 만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로부터의 학생들도 잘 혼합되어 화합을 이룬 훌륭한 (c)단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a) distinctive(독특한): 다른 사람들 또는 같은 유형의 다른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기 쉬운
 (b) perfect(완벽한): 가능한 만큼의 훌륭한, 올바른, 정확한
 (c) harmony(조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고 일하는 상황
- 24 가정법 과거완료 「If + 주어 + had + 과거분사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have + 과거분사 ~.」 구문을 사용한다.

25 (B) 뒤에서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 출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가진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선생님의 반은 굉장히 다문화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어진 문장은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 또는 살기 위해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해 가고 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multicultural(다문화적인)이다.

Lesson 06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p.144~151

- 01 In the hope of having a long prosperous life, *minhwa* artists used ten symbols of longevity in their paintings
- 02 Ⓐ (e)ternal Ⓑ (r)epresented
- 03 The purpose is to protect people from misfortune.
- 04 (A) their thoughts, dreams and wishes
(B) good fortune
- 05 (A)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you're interested in
(B) I can't wait to learn *buchaechum*
- 06 Ⓐ → performed by female dancers
Ⓑ → They can make other beautiful images
Ⓒ → Have you ever seen *buchaechum*
- 07 (A) it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to find *minhwa*
(B) None of the original *minhwa* artists could have imagined the popularity of their paintings
- 08 Ⓐ 민화가 우리의 벽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
Ⓑ 당신이 오늘 그린 그림
- 09 ① take ② to give ③ reminding
- 10 (a) cautiously (b) revived (c) ingenuity
- 11 (1) (e)xists (2) (a)tttractive
- 12 The tiger w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painted subjects in ancient Korean paintings.
- 13 (A) to catch sight of tigers (B) both feared and respected
- 14 (A) There is not a single strand of fur out of place.
(B) Anyone looking at this creature could almost be tempted to pet it.
- 15 (1) Ⓒ → was quite different (2) Ⓐ → painted (3) Ⓒ → about it
- 16 ① fierce ② powerful ③ comical ④ cute
- 17 (1) authority (2) anonymous
- 18 (C)omparison, (F)eatures, (T)iger, (A)rtists' (T)iger
- 19 Ⓐ delivery Ⓑ delivered Ⓒ deliver
- 20 (1) the late Joseon period did paintings begin to decorate the homes of common people
(2) didn't begin to decorate the homes of common people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 21 (1) were too expensive
(2) exclusively for the king and the government by famous artists
- 22 meaning, *minhwa*, time, began
- 23 *minhwa* artists applied free and creative techniques to their paintings
- 24 drawing, object, perspectives
- 25 (1) T (2) F (3) T (4) F

01 「in the hope of + 동명사」 구문을 사용한다.
 02 Ⓐ eternal(영원한) : 영원히 또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 represent(표현하다, 상징하다) : 어떤 것의 신호 또는 상징이 되다
 03 「민화 화가들이 용과 같은 무서운 동물들을 그린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중후반부의 They also drew animals such as dragons, ~ from

misfortune에 '사람들을 불운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무서운 동물들을 그리기도 했다'고 제시되어 있다.

- 04 조선 시대 보통 사람들은 민화 덕분에 (B)행운으로 가득 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민화가 다양한 동물과 사물에 의해 상징화된 (A)그들의 생각, 꿈, 그리고 소원의 반영이라고 여겼다.
- 05 (A) 괄호 안의 표현으로 미루어 문맥상 '너의 관심을 끄는 특별한 것이라도 있니?'라는 문장이 적절하므로, 「Is there anything ~ ?」 '~한 것이 있니?' 구문과 anything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B) 문맥상 '빨리 부채춤을 배우고 싶어'라는 문장이 적절하므로, 「I can't wait to + 동사원형」 '~이 정말 기대된다, 빨리 ~을 하고 싶다' 구문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 06 Ⓐ 앞의 명사 dance를 수식하는 분사 자리로, '공연되는'이라는 수동의 의미가 적절하므로 현재분사 performing을 과거분사 performed로 고쳐 써야 한다.
Ⓑ 「other + 복수 명사」가 적절하므로 other 뒤의 단수 명사 image를 복수 명사 images로 고쳐 써야 한다.
Ⓒ 이어지는 대화에서, 「Yes, I have」라고 대답했으므로, 앞선 의문문의 시제가 have가 들어간 현재완료임을 알 수 있다. 문맥상 '부채춤을 본 적이 있니?'라고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경험을 묻는 「have you ever + 과거분사-?」 구조를 취하여, Did you ever see를 Have you ever se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7 (A) 「비교급 and 비교급」 구문과 가주어 it 뒤에 진주어 to부정사를 이용한다.
(B) 「none of + 명사」 구문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could have + 과거 분사」 '~했을지도 모른다' 구문을 이용한다.
- 08 Ⓐ '그것'은 앞서 나온 it is disappearing from our walls, '그것(민화)가 우리의 벽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
Ⓑ '그것'은 앞서 나온 if you draw something today에서 미루어, '당신이 오늘 그린 그림'을 가리킨다.
- 09 ① '(시간을) 내다'라는 의미로, if 조건절에 속해 있는 동사 자리이다. 주절이 미래 시제이지만, 조건절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take가 적절하다.
②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be afraid 뒤에 to부정사를 써야 한다. '시도하다'는 give it a try이므로 빈칸에는 to give가 적절하다.
③ '(계속해서) 상기시켜라'라는 의미로 「keep + 동명사」 '~하는 것을 지속하다' 구문을 써야 한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는 remind A of B이므로 빈칸에는 reminding이 적절하다.
- 10 (a) '조심스럽게'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의 대체 가능한 단어는 cautiously(조심스럽게)이다.
(b) '다시 태어난'이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의 대체 가능한 단어는 revived(활기를 되찾게 되다, 부활되다)이다.
(c) '창의성'이란 의미로 같은 의미의 대체 가능한 단어는 Ingenuity(독창성)이다. (desperately: 필사적으로, 절망적으로 / improving: 향상되고 있는 / intelligence: 지능 / transformed: 변형된)
- 11 오늘날 민화가 극소수의 한국의 집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부 아이템들을 (2)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이미지로 민화가 복구됨으로써, 그것은 여전히 한국의 민속 문화를 상징하기 위해 가까이 에 (1)존재한다. (restore: 복원[복구]되다)
(1) exist(존재하다): 세상에 실존하는 것으로 존재하다
(2) attractive(매력적인): 기분 좋은 외형이나 소리를 갖고 있는
- 12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가장 ~한 명사들 중 하나' 구문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 13 (A) 앞서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진주어 to부정사구를 이용해야 하며, 문맥상 '호랑이를 쉽게 보는 것'을 나타내야 하므로 '~을 보다, ~을 찾아내다'인 catch sight of를 사용하여 빈칸을 채운다.
(B) 뒤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both A and B를 이용해야 하며, 문맥상 '두려워지고 존경됨'을 나타내야 하므로 both feared and respected라고 빈칸을 채운다.

- 14 (A) 「There is not ~」 '~가 없다' 구문과 out of place '제자리에 있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다.
 (B)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와 추측의 could, 「be tempted to + 동사원형」 '~하고 싶다' 구문을 이용한다.
- 15 ㉔ 주어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tigers ~ artists가 이어져 있는 구조로, 주어가 단수이므로 복수 동사 were를 단수 동사 was로 고쳐 써야 한다.
 ㉕ 앞의 the tiger를 수식하는 분사 자리로 '그려진'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현재분사 painting을 과거분사 painted로 고쳐 써야 한다. 분사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구조로 볼 수 있다.
 ㉖ about 뒤의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앞 문장에 제시된 this one(무명의 화가에 의한 호랑이)이므로 단수로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복수 대명사 them을 단수인 it으로 고쳐 써야 한다.
 ㉗ 「each + 단수 명사」 구조로 each 뒤에 단수 명사 strand는 적절히 쓰였다.
 ㉘ 주어인 its tail이 '(위로) 향하여지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동사의 수동태 구조 「be동사 + 과거분사」인 is pointed는 적절히 쓰였다.
- 16 •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 '그것은 ㉑ 맹렬한 호랑이로 묘사된다.' / '모든 털 가닥들이 ㉒ 강력해 보인다.' / '그것의 꼬리는 위엄 있어 보인다.'
 • 민화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 '그것은 무서운 것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 '그것의 둥근 이와 두 앞 다리는 ㉓ 재미있어 보인다.' / '그것의 꼬리는 ㉔ 귀여워 보인다.'
- 17 (1) authority(권위): 결정을 내리거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 명령할 수 있는 힘
 (2) anonymous(익명의): 당신이 무언가를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 18 김홍도가 그린 호랑이 그림의 특징과 민화 화가들이 그린 호랑이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김홍도의 호랑이와 민화 화가들의 호랑이의 특징들의 비교(Comparison of the Features of Kim Hongdo's Tiger and Minhwa Artists' Tiger)'란 제목이 적절하다.
- 19 ㉔ 앞에 전치사와 관사 the가 있으므로 명사 자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eliver의 명사형 delivery를 써야 한다.
 ㉕ 「get + 목적어 + 목적격 보어」 구조로 목적어인 them이 목적격 보어 deliver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them은 groceries로 '배달 된'이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deliver의 과거분사 delivered를 써야 한다.
 ㉖ 앞에 조동사 can이 있으므로 본동사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조동사 뒤에 위치하므로 동사원형 deliver를 써야 한다.
 소년: 한국에서의 방학은 어땠니?
 소녀: 아주 좋았어. 특히, 배달 서비스가 인상 깊었어.
 소년: 무슨 뜻이지?
 소녀: 아침에 식료품을 주문하면, 저녁에 그것을 배달 받을 수 있어.
 소년: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가게들은 두어 시간 안에 배달을 해 줘.
 소녀: 오, 믿을 수 없어!
- 20 「It is not until ~ that ...」 구문으로 not until ~ 부분이 강조된 구문이다.
 (1) not until이 이끄는 구를 문두에 놓으면, 부정어가 문두에 놓이게 되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야 하므로 「did + 주어 + 동사원형」의 구조로 바꿔 써야 한다.
 (2) Paintings가 주어 자리에 놓였으므로, 「not ~ until...」 구조로 바꿔 써야 한다.
- 21 '왜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옛날에 실질적으로 그림을 살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중반부의 Aside from the fact ~ for the king and the government에 '그림이 비쌌고, 유명 화가들은 오직 왕과 정부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렸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 22 민화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고 조선 시대 보통 사람들이 민화를 접하게 된 시기에 대해 언급한 글이므로, 글의 주제는 '민화의 의미와 민화가 시작된 시기(the meaning of *minhwa* and the time when *minhwa* began)'가 적절하다.
- 23 「apply A to B」 'A를 B에 적용하다' 구문과 필요한 어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rtist(작가, 화가)는 복수형 artists로, create(창조하다)는 형용사형

creative(창조적인, 창의적인)으로 고쳐 쓰고, apply(적용하다)는 시제가 과거이므로 applied로 고쳐 써야 한다.

- 24 앞서 제시된 They did not feel that an object had to be drawn from only one perspective에서 '(피카소가 사용했다) 비슷한 기법'이란 것은 '사물을 한 가지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그리는 기법'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문에서의 비슷한 기법이란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그리는 기술을 일컫는다.
- 25 (1) 초반부의 Have you noticed anything strange ~ and the other legs from the back에서 호랑이의 신체 각 부분이 다른 시각에서 그려져서 이상해 보임을 알 수 있으므로 '민화 속 호랑이는 독특한 기법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상해 보인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2) 초반부의 the front legs from the side, and the other legs from the back에서 호랑이의 앞 다리와 다른 다리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그려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민화 속 호랑이의 모든 다리는 같은 시각으로 그려졌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중반부의 They did not feel ~ from only one perspective에서 민화 화가들은 사물이 오직 한 가지 시각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민화 화가들은 한 가지 시각으로 그리는 것이 의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compulsory: 의무적인)
 (4) 후반부의 A similar technique was also used later by Picasso ~ in the 20th century에서 민화 화가들의 기법이 나중에 20세기 피카소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했으므로 '피카소의 입체파는 20세기 민화 화가들로 이어졌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Lesson 05 **적중 모의고사**

p.152~160

01 ㉓	02 ㉕			
03 (1) passionate (2) appearance (3) insult (4) board				
04 (1) sign (2) sum (3) passionate	05 ㉕	06 ㉔	07 ㉑	
08 ㉑				
09 You should not[shouldn't] say that another culture's ideas are wrong				
10 ㉓	11 ㉔	12 ㉔		
13 (1) error → errors (2) are → is	14 ㉓	15 ㉔		
16 (1) which → whose (2) whom → who[that]				
17 (1) one of the most common natural disasters (2) One of the rarest species in the world is				
18 of which the effect[the effect of which]	19 ㉕	20 ㉔		
21 ㉔	22 ㉓	23 that	24 Each ingredient	25 ㉕
26 watering → water	27 ㉔	28 ㉔	29 ㉔	30 ㉑

- 01 ㉓ '무언가를 열렬히 받아들이다'는 embrace(받아들이다)의 영영풀이이고, yell(소리치다)의 영영풀이는 to shout something or make a loud noise, usually when you are angry, in pain, or excited(화나거나 고통스럽거나 또는 흥분했을 때 큰 소리를 치거나 만들다)가 적절하다. (enthusiastically: 열렬히, 열광적으로)
 ① 전체: 무언가의 전부
 ② 숨기다: 눈에 보이지 않게 놓다
 ④ 우아한: 외모나 행동에 있어서 우아하거나 매력적인
 ⑤ 정직하지 못한: 신뢰할 수 없는, 기만하는 또는 진실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untrustworthy: 신뢰할 수 없는(= unreliable) / deceitful: 기만적인, 부정직한 / insincere: 진실 되지 못한)
- 02 draw attention: 관심을 끌다
 ① 뛰쳐나오다 ② 줄을 서다
 ③ 교대로 ~하다 ④ 마음이 편안하다

- 03 (1) 아주 강한 감정을 가지는: 열정적인(passionate)
 (2) 누군가나 무언가가 보이는 방식: 외모(appearance)
 (3)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행하다: 모욕하다(insult)
 (rude: 무례한 / offensive: 모욕적인, 불쾌한)
 (4) 교사가 분필로 쓰는 벽이나 틀 위의 검은색(하얀색) 부분: 칠판(board)
- 04 (1) sign: 징후, 조짐: 간판, 표지판; 몸짓
 (2) sum: 총합, 전부
 (3) passionate: 열정적인
 insulting: 모욕적인, gaze: 응시, confident: 자신감 있는
- 05 빈칸 뒤에 '물론이지. 나는 2년 동안 알츠를 배워 왔어.'라는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⑤ '알츠 추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니?'가 적절하다.
 ① 그것을 볼 거니?
 ② 그것을 어디에서 보니?
 ③ 내가 알츠를 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니?
 ④ 그게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니?
- 06 소녀는 집에 마트로시카 인형을 갖고 있다고 했으므로 ④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마트로시카 인형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② 마트로시카 인형은 둥글고 색이 다양하다.
 ③ 마트로시카 인형을 열면 안에서 더 작은 인형이 나온다.
 ⑤ 소녀는 나중에 마트로시카 인형을 가져올 수 있다.
- 07 Is that so?는 '그런가요?'라는 뜻으로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 놀라움이나 흥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G: 이봐, 뭘 읽고 있니?
 B: 문화적 차이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
 G: 뭐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
 B: 응. 이 단락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V 표시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
 G: 그래? 왜?
 B: V 표시를 하면서 손등을 보이면 모욕을 주는 거래.
- 08 빈칸 뒤에서 이집트에서는 연장자 앞에서 다리를 꼬면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①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 줄래?'는 적절하지 않다.
 ② 이집트 여행을 위해 조연 좀 해 줄 수 있니?
 ③ 이집트 여행을 위해 조연 좀 해 줄래?
 ④ 이집트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니?
 ⑤ 이집트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해 줄래?
 A: 이집트 여행을 위한 조연 좀 해 줄래?
 B: 물론이지! 이집트에서는 연장자 앞에서 다리를 꼬면 안 돼.
 A: 그래? 왜?
 B: 그건 무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
- 09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should not[shouldn't]으로 표현한다.
- 10 Joanne이 한국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법킨을 부탁했는데 두루마리 화장지를 바아서 당황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1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을 이용해 영작하면 Our teacher is one of the smartest people I know.이므로 여덟 번째로 오는 단어는 people이다.
- 12 ③④⑤는 어법상 옳은 문장이다. ③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접속사 + 대명사」 역할을 하므로 대명사 them을 삭제해야 한다.
 ④ 나는 형제가 모스크바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났다.
 ⑤ 그것은 내가 본 시험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들 중 하나였다.
 ⑥ 나는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비서를 찾고 있는 중이다.
 ⑦ 내 직업의 최고의 장점들 중 하나는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 13 (1)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으로 error를 errors로 고쳐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들 중 하나이다.
 (2)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이 주어로 쓰일 경우 단수 취급하므로 are를 is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가장 용감한 군인들 중 한 명이 나의 삼촌이다.

- 14 (A) '그 키 큰 남자의 이름'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John은 이름이 기억할 수 없는 키 큰 남자와 함께 일한다.
 (B) 선행사 woma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o[that]가 적절하다. 병원에 나를 방문했던 그 여자는 매우 친절했다.
 (C) 선행사 weather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ich[that]가 적절하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보낸 날씨는 매우 더웠다.
- 15 ④ 선행사인 house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which[that]로 고쳐 써야 한다.
 ① Jenny는 우리 동아리에서 가장 예의 바른 학생들 중 한 명이다.
 ② 내 배낭을 훔친 남자는 체포되었다.
 ③ 이 음식은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들 중 하나이다.
 ⑤ 너의 길 건너편에 사는 여자 아니야?
- 16 (1) '고양이의 눈'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므로 which를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고쳐 써야 한다. 나는 눈이 매우 아름답고 빛나는 고양이를 키운다.
 (2) 선행사인 boy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om을 who[that]로 고쳐 써야 한다. 아주 수다스러운 그 소년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Julian이다.
- 17 (1)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을 이용한다.
 (2)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구문이 주어로 쓰일 경우 단수 취급하는 것에 유의한다.
- 18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of which로 바꾸고, 명사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 쓸 수 있다. 그는 효과가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진통제를 먹었다. (painkiller: 진통제)
- 19 주어진 글은 새로운 학생이 왔으므로 이 선생님이 환영의 점심 식사로 비빔밥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D)가 오고, 며칠 후 점심시간쯤 학생들의 집중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B)가 이어지고,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 학생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A)가 오고,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이 카트를 가져 오시는 내용의 (C)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0 이 선생님이 카트를 가지고 교실로 들어오시자 학생들이 환호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④ screamed(scream: 비명을 지르다)를 cheered(cheer: 환호하다)로 바꿔 써야 한다.
- 21 ② there에 의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구문으로 주어가 단수이므로 단수형 wasn't로 고쳐 써야 한다.
- 22 ③ 「each + 단수 명사」는 '각각의 ~'라는 뜻으로 단수 취급하므로 has로 고쳐 써야 한다.
- 23 (A)에는 it ~ that 강조 용법의 that, (C)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적절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that이다.
- 24 they는 바로 앞 문장의 Each ingredient(각각의 재료)를 가리킨다.
- 25 비빔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잘 알게 되었으므로 내일은 바람직한, 비빔밥의 방식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맥락이므로 ③ the same(같은)을 different(다른)로 바꿔 써야 한다.
- 26 watering은 사역동사 making(make)의 목적격보어이므로 동사원형 water(군침이 돌다)로 고쳐 써야 한다.
- 27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섞여 있는 이 선생님의 반이 비빔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④ '그들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즐기다'가 적절하다. (embrace: 받아들이다)
 ① 몇몇 증거를 수집하다
 ② 모든 사람들을 존중으로 대하다
 ③ 새로운 곳에서의 삶에 적응하다
 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무시하다
- 28 ⑥ '~였다면 ...했을 텐데'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완료(if + 주어 + had + 과거분사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have + 과거분사 ~.)이므로 ⑥ draw를 have draw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9 주어진 문장은 ‘이 선생님의 반조차도 굉장히 다문화적이었다.’라는 내용으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가진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내용 바로 앞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0 ① Mikhail이 언제 한국에 도착했는지는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② 지호의 반에 빈자리가 있었는가? (→ 몇 개 있었음)
③ Perm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관심이 없었는가? (→ 준호)
④ 준호의 학교에서 증가하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 다른 문화에 대한 무관심)
⑤ 왜 Mikhail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는가? (→ 이 학교의 첫 번째 외국인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

Lesson 06 **적중 모의고사**

p.161~169

01 ⑤	02 ④
03 (1) reborn (2) viewpoint (3) ancient (4) gather	
04 (1) authority (2) anonymous (3) perspective	05 ③ 06 ④
07 ⑤	08 ③ 09 ④ 10 ③ 11 ③
12 (1) Little did I dream of seeing James again. (2) Never did he expect the book to be found. (3) Not until 5 p.m. did an airplane start to take off.	
13 ②	
14 (1) must been → must have been (2) can't park → cannot have parked	
15 Not until, did my mother ask	16 ①
17 He could have been Prime Minister but he got involved in a big financial scandal.	
18 ③	19 ② 20 ②
21 None of the original <i>minhwa</i> artists could have imagined the popularity of their paintings	
22 ③	23 ① 24 ④ 25 ① 26 ③
27 Paintings did not begin to decorate the homes of common people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28 ④	29 (A) subjects (B) strand 30 ②

- 01 ⑤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무언가가 다시 인기를 얻기 되다’는 rebirth(부활)의 영영풀이에 해당하고, tale(이야기)의 영영풀이는 a story, especially one that might be invented or difficult to believe(특히 창조되었거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풀이 될 수 있다.
- ① 대중: 모든 보통 사람들
② 운: 운, 특히 행운
③ 정부: 나라를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사람들의 무리
④ 특성: 특정한 유형의 행동을 만들어 내는 특정한 특징
- 02 ④ take courage: 용기를 얻다[내다]
① 시도하다 ② ~을 보다
③ 명심하다
⑤ take one's last breath: 끝나다; 숨을 거두다
- 03 (1) reborn(다시 활발해진): 생명이나 활동성이 되살려진
(2) viewpoint(관점): 무언가를 고려하는 방식
(3) ancient(고대의, 먼 옛날의): 아주 먼 과거에 해당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4) gather(모으다): 다른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몇 가지 것들을 모으다
- 04 (1) authority: 권위
(2) anonymous: 익명의
(3) perspective: 관점
tale: 이야기, period: 시대, common: 보통의
- 05 ③ out of place: 제자리에 있지 않은

① ~ 이외에는 ② 그때 ④ 특히 ⑤ 금방이라도

- 06 아침에 식료품을 주문하면 저녁에 배달이 된다고 말하는 소녀에게 ‘오, 그건 아무 것도 아니야. 어떤 가게는 두어 시간이면 배달을 해 줘.’라고 소년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④ ‘소년은 한국의 배달 서비스에 대해 잘 알아.’가 대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소녀는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다. (→ 소녀는 한국에서 방학을 보냈음)
② 소년은 한국에서 소녀를 처음 만났다. (→ 처음 만났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음)
③ 소녀는 한국에서 배달 서비스를 좋아하지 않았다. (→ 배달 서비스가 인상 깊었다고 언급함)
⑤ 소년은 한국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 이용하지 않은지는 언급되지 않았음)
- 07 ⑤ 민속 마을인 한옥 마을에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A의 말에 빨리 가보고 싶다는 B의 대답은 어색하다.
① A: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는데?
B: 어디서나 따뜻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었어.
② A: 너는 방학 때 어디에 같이 정했?
B: 수원을 방문할 거야. 여행을 가게 되어서 정말 신나.
③ A: 너는 한국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니?
B: 나는 한국을 생각하면 K-pop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④ A: 한국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구나.
B: 전적으로 동의해. 나는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어.
- 08 「I can't wait to + 동사원형」은 ‘~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기대를 표현한다.
- 09 Miranda는 부채춤에 매료되어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하므로 ④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 Mike와 Miranda가 같은 반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② → Miranda가 부채춤을 직접 본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 Mike의 여동생이 부채춤 동아리의 회원인지는 알 수 없다.
⑤ → 부채춤을 공연하는 댄서들이 꽃무늬가 장식된 부채를 사용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 10 빈칸에는 이집트에서 연상자 앞에서 다리를 고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말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③ ‘그건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는 적절하지 않다.
① 그건 무례하다는 뜻이야.
② 그건 예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④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
⑤ 연상자 앞에서 다리를 고면 그건 무례한 거야. (insolent: 무례한, 버릇없는)
- 11 ③ could have + 과거분사: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수도 있었다
그들이 결혼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addicted to: ...에 중독되다)
그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혼을 했을 수도 있었다.
- 12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1) 나는 James를 다시 보는 것을 전혀 꿈꾸지 않았다.
(2) 그는 그 책이 발견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3)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다.
- 13 ⑥◎는 어법상 옳은 문장이다. ◎는 「cannot have + 과거분사(~이었을 리가 없다)」이므로 attend를 attended로 고쳐 써야 한다.
④ 현재 피곤해 보여서 쉬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should have taken을 should take로 고쳐 써야 한다.
◎ Kevin은 복통이 있으며, 어제 많이 먹지 말았어야 했다는 맥락이 자연스러우므로 should have eaten을 should not[shouldn't] have eat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⑥ 너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 나는 내 돈을 다 쓰지 말았어야 했다.
- 14 (1) Bill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가 전화했을 때 그는 바빴음에 틀림이 없다. (must have + 과거분사: ~이었음에 틀림없다)
(2) Penny는 지난밤에 그녀의 차를 여기에 주차 했을 리가 없다. 그녀는 3일 전에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 (cannot have + 과거분사: ~이었을 리가 없다)

- 15 부정어구(not until)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나의 어머니는 Carolyn이 가고 나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물으셨다.
- 16 부정어(구) rarely가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당신이 될 거라 생각하는 만큼으로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 17 「could have + 과거분사」는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18 ㉓ 부정어구 not until이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므로 「조동사 + 주어 + 동사원형」 어순을 취한다. 따라서 I will을 will I로 고쳐 써야 한다.
① 그녀는 오늘 그녀의 남동생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다.
② Jerry는 그날 밤 단 한 가지 꿈도 꾸지 않았다.
③ Emma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그녀와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④ Andrew는 캐나다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이 없다.
⑤ 나는 그 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걸 좀처럼 본 적이 없다.
- 19 주어진 문장은 ‘단지 그것이 우리의 벽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서 민화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민화의 종말을 암시하는지 묻고 답하는 내용 바로 뒤인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0 시간을 내어 주의 깊게 주변의 세상을 본다면 민화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맥락이므로 ㉔ urgently(긴급하게)를 carefully(주의 깊게)로 바꿔 써야 한다.
- 21 「could have + 과거분사」는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22 주어진 문장은 ‘그것은 무언가 재미있는 구석이 있다.’라는 뜻으로 김홍도가 그린 호랑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호랑이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다는 내용 바로 뒤인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3 (A) 호랑이 그림이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것이므로 과거분사 painted로 고쳐 써야 한다.
(B) 비슷한 기법은 사용되는 것이므로 수동태의 과거분사 used로 써야 한다.

- 24 호랑이의 얼굴은 정면에서, 앞 다리는 측면에서, 다른 다리는 뒤에서 그려진 것으로 보아 민화 화가들은 그림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㉔ conventional(관습적인, 틀에 박힌)을 creative(창의적인)로 바꿔 써야 한다.
- 25 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는 앞부분의 *minhwa*(단수 명사)를 가리키므로 단수 동사 means로 고쳐 써야 한다.
- 26 주어진 문장은 ‘그때 무명의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 그들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팔기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그때’는 보통 사람들이 그림으로 집을 장식한 조선 시대 후기를 가리키므로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7 부정어구(not until)에 의해 도치된 문장을 원래대로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바꾼다.
조선 시대 후기가 되어서야 그림이 보통 사람들의 집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 그림은 조선 시대 후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의 집 장식을 시작하지 못했다.
- 28 앞에서 민화 화가들이 불운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무서운 동물들을 그리기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름다운 꽃과 함께 있는 암수의 새는 ㉔ ‘행복한 결혼이나 평화로운 가정을 상징했다’가 적절하다.
①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보여줬다
② 주장의 오류를 나타냈다
③ 시대의 움직임을 아주 빠르게 반영했다
⑤ 우리의 자연을 지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 29 (A)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이므로 복수 명사 subjects로 고쳐 써야 한다.
(B) each 뒤에는 단수 명사가 나오므로 strands를 strand로 고쳐 써야 한다.
- 30 주어진 문장은 ‘호랑이들은 고대 한국인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었다.’라는 뜻으로 호랑이는 고대 한국의 그림에서 가장 자주 그려진 대상들 중 하나이면서도 가축을 잡아먹거나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다는 내용 바로 뒤인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